



# Insurance Industry Outlook 2015

제39회 보험 CEO 및 경영인 조찬회

『201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4. 10. 7(화) 07:30~09:00

조선히텔(소공동) 2층 오키드룸

# 201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I. 경제 동향 및 전망

1. 세계 경제
2. 국내 경제

## II. 보험산업 동향 및 전망

1. 최근 주요 특징 및 전망 근거
2. 생명보험 동향과 전망
3. 손해보험 동향과 전망

## III. 경영 및 정책과제



# I. 경제 동향 및 전망

1. 세계 경제

2. 국내 경제



## 미국, 일본, 중국 경제 회복 중

- 미국은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고 수출이 개선되면서, 중국은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
- 그러나 유로 경제는 디레버리징이 계속되어 소비와 수출이 부진하면서 회복 지연

2014년 주요국 경제지표

		2013	2014 1/4	2/4	5월	6월	7월		
미국	GDP	2.2	-2.1	4.2	-	-	-	미국	• 주택가격 상승, 민간 부문 중심 회복세
	주택가격*	11.5	8.5	4.4	4.4	3.7	4.9		
유로	GDP	-0.4	0.2	0.0	-	-	-	유로	• 소비와 수출 회복세 부진
	소매판매	-0.8	0.6	0.3	0.2	0.3	-0.4		
	수출	0.9	1.1	0.1	0.7	-0.5	-		
중국*	GDP	7.7	7.4	7.5	-	-	-	중국	• 수출 호조세
	수출	7.8	-3.4	5.0	7.1	7.3	14.5		
일본	GDP	1.5	1.5	-1.8	-	-	-	일본	• 소비세율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 완화 • 소비자물가상승
	수출	9.5	-1.5	-1.2	-1.6	2.2	1.5		
	CPI*	0.4	1.5	3.6	3.7	3.6	3.4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2014.9)

## 2015년 세계 경제 회복세 확대

- 세계 경제는 2014년 일부 선진국 회복에 힘입어 3.3%, 2015년 선진국과 신흥국이 모두 회복함에 따라 3.9% 성장할 전망
-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중국 경제성장 둔화 우려, 지정학적 불안 등이 위험요인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13	2014(E)	2015(F)
세계	3.0	3.3	3.9
선진국	1.3	2.0	2.3
신흥국	4.7	4.8	5.3
미국	1.9	1.8	3.2
유로	-0.5	1.1	1.5
일본	1.5	1.3	1.2
중국	7.7	7.5	7.4

자료: IMF WEO Update(2014.4)와 한국은행(2014.7) 재편집

### 세계 경제성장 위험요인

#### I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양적완화 종료 이후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  
 - 유로와 일본의 양적완화정책 확대와 맞물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 II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우려

과잉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경착륙 가능성

#### III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 확대

다른 위험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경기하방 리스크가 상방 리스크 보다 높음

## 기준금리 인상 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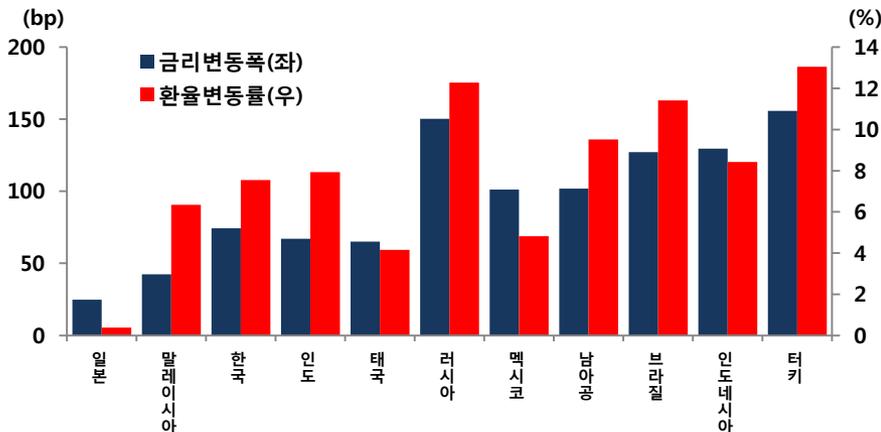
- 연준은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 개선됨에 따라 예정대로 2014년 10월 양적완화정책을 종료할 것임.
- 연준이 초저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으로 밝혔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어 연준의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도 상존

###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2008	2010	2014(E)	2015(E)
성장률	-0.3	2.5	1.8	3.2
실업률	5.8	9.6	6.4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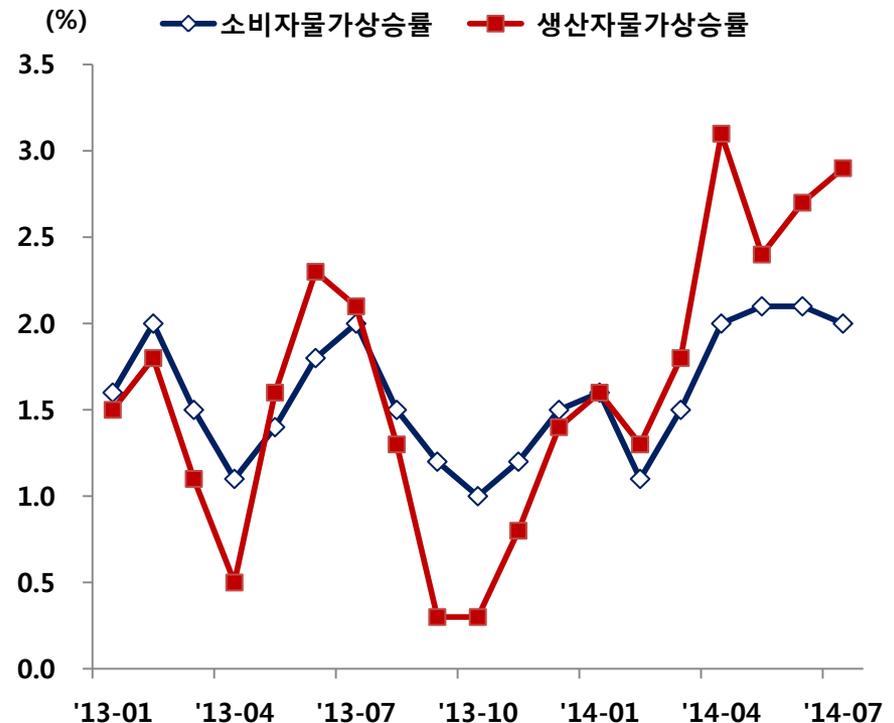
자료: IMF WEO (2014.4); 한국은행(2014.7)

### 1~8월 주요국 금리 및 환율 변동폭



주: 금리는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기간 내 최고값-최저값임.  
자료: Bloomberg

### 미국의 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Bloomberg

## 과잉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경우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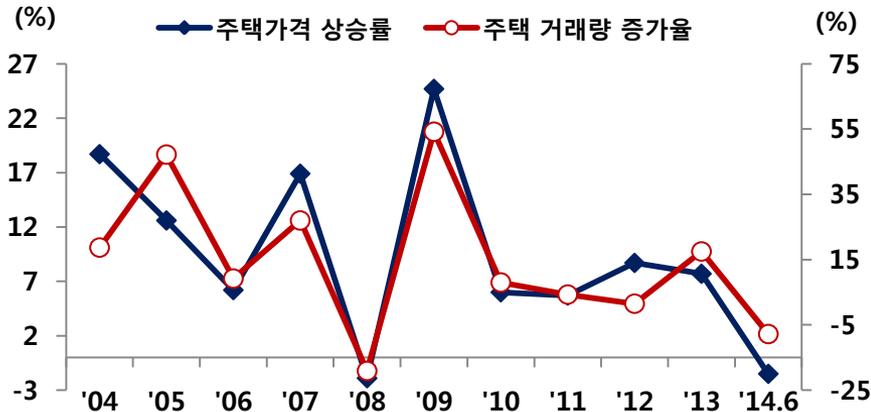
- 중국은 신용 팽창에 의한 과잉투자가 지속되어 왔으나,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해외수요가 위축되며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 과잉투자에 의한 부동산 거품 및 기업부채 문제가 구조조정으로 현실화될 경우 중국 부동산 시장 위축, 지방재정 악화, 투자 및 소비 위축 등 경기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임.

###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2008	2010	2014(E)	2015(E)
성장률	9.6	10.4	7.5	7.4
실업률	4.2	4.1	4.1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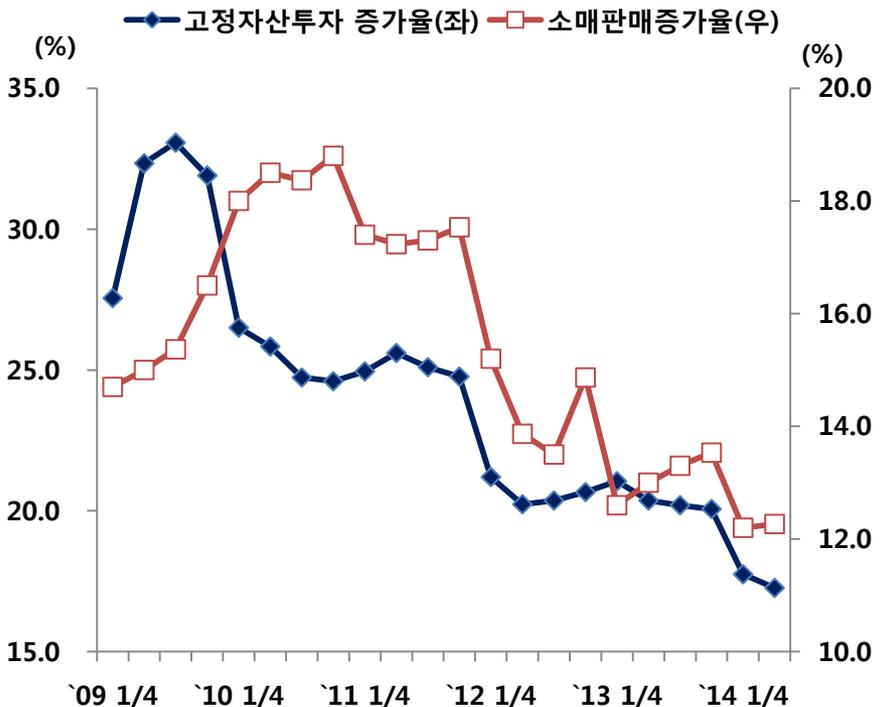
자료: IMF WEO (2014.4); 한국은행(2014.7)

### 주택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증가율 추이



주: 전년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중국의 투자 및 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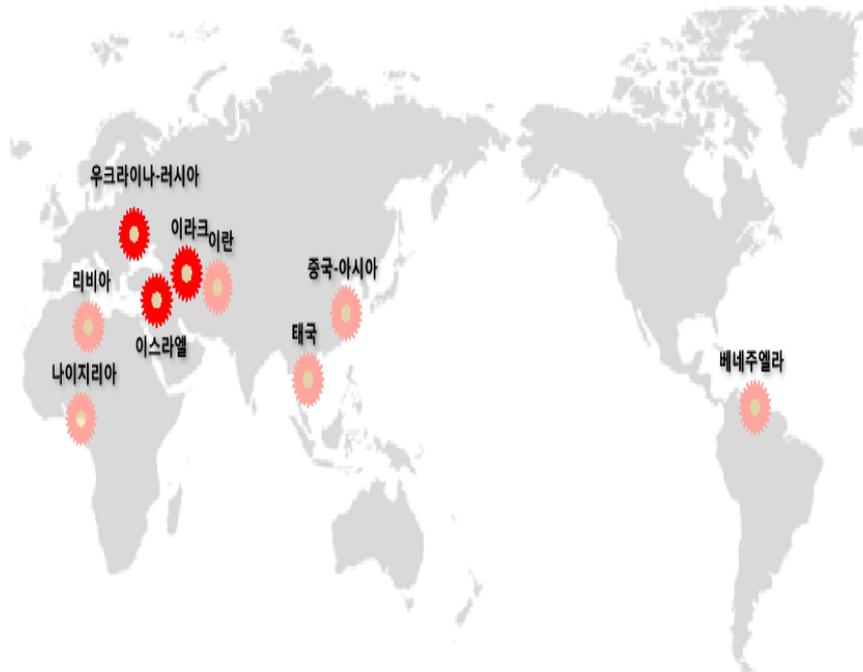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글로벌 3대 지정학적 위험에 유의

-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이라크, 이스라엘-하마스 등 3개의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 3개의 지역은 국제 에너지가격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 지정학적 위험이 높은 지역



자료: 국제금융센터

### 전세계 상위 원유 생산 지역(201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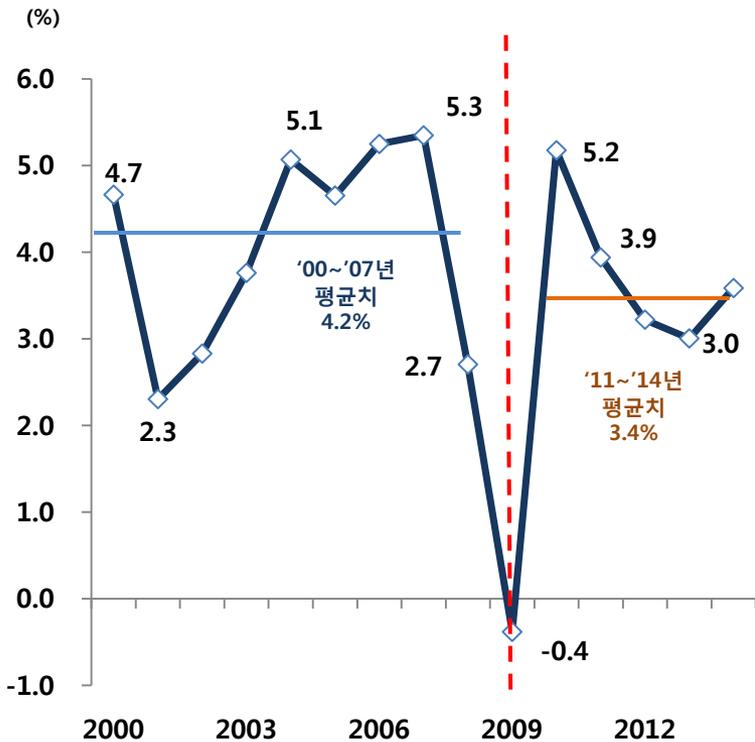
	일 생산량 (천 배럴/일)	생산 비중 (%)
중동	27,170	30.2
북미	19,285	21.4
미국	12,304	13.7
유라시아	13,564	15.1
아시아 및 대양주	8,935	9.9
중앙 및 남미	7,942	8.8
유럽	3,790	4.2

자료: EIA; 삼성자산운용

##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공황 이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충격

-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은행위기, 신용경색, 주택시장 및 주식시장 붕괴가 동반된 대형 위기(한국은행 2014)

###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IMF WEO(2014.4)

#### 대차대조표 훼손

- 디레버리징을 통한 대차대조표 복구에 장기간 소요

#### 설비투자 소홀

- 고령화 진전으로 노동공급 증가율 둔화
- 2000년대 들어 단기성과 중심의 경영으로 장기 시각의 설비투자가 소홀하고 내부 유보 확대 및 현금보유 증가



#### 재정여력 부족

- 정부부채 비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발생한 재정위기로 인해 시행된 재정긴축 조치가 경제를 위축

#### 소득분배 구조 악화

- 기술진보 및 금융화가 소득분배 악화의 주요인
- 라이시: 소득분배 악화가 금융위기 주범
- 윌러: 현 세계 경제는 나치시대와 유사

## 2015년 국제유가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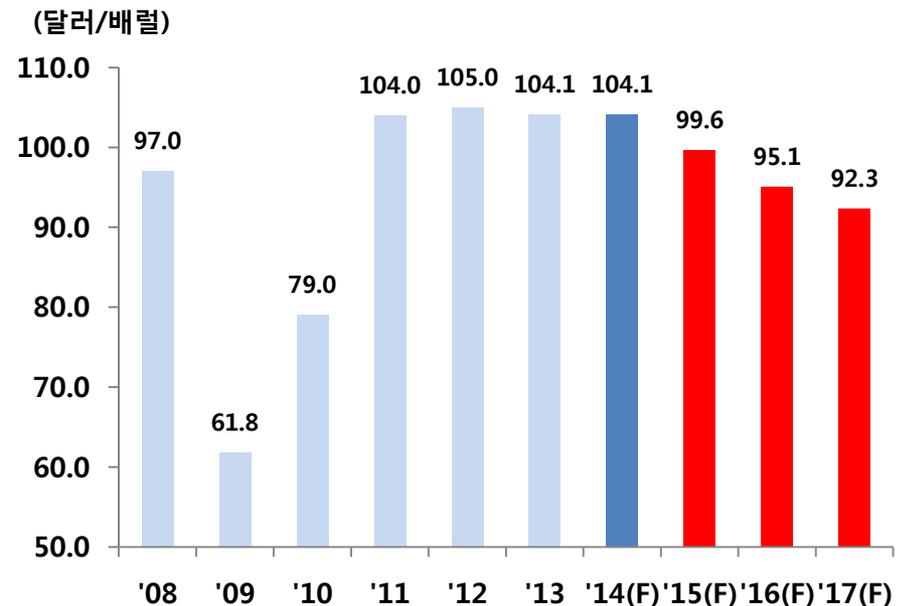
- 2014년 상반기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지정학적 불안으로 상승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달러화 강세 등으로 소폭 하락함.
- 지정학적 위험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2015년 국제유가는 비OPEC 국가의 원유공급 증가와 달러화 강세로 2014년(104.1 달러) 대비 4.3% 하락한 배럴당 평균 99.6달러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률



주: 비연료원자재가격지수와 국제유가지수는 2005=100  
국제유가지수는 브렌트, 두바이, WTI 원유가 단순평균  
자료: IMF(2014.9)

### 국제유가 전망(IMF)



주: 브렌트, 두바이, WTI 원유가 평균  
자료: IMF(2014.6)

## 2015년 달러화 강세

-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 완화 지속과는 반대로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및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달러화 강세는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지속될 전망

### 달러 대비 유로화와 엔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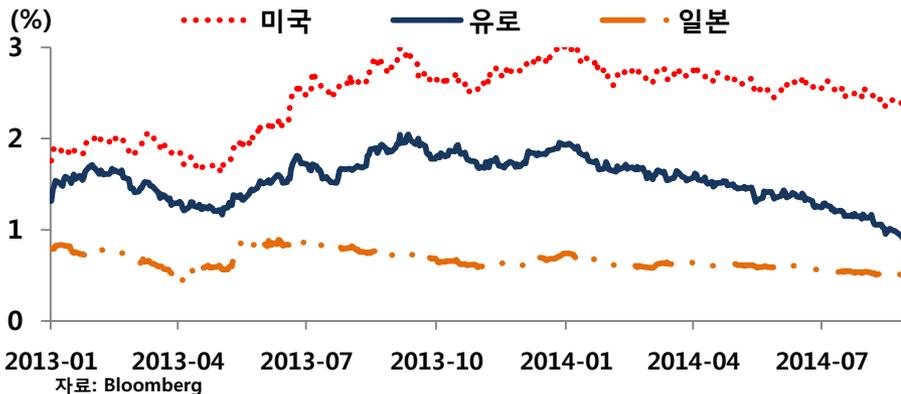


### 주요 투자은행 환율 전망

	2014		2015	
	상	하(E)	상(F)	하(F)
달러/유로	1.33	1.31	1.27	1.25
엔/달러	102.4	107.5	109.0	111.0
위안/달러	6.2	6.1	6.1	6.0

주: 주요 투자은행 전망치의 중간값  
자료: Bloomberg

### 미국, 유로, 일본 국채 수익률 추이



### 미국 국채 수익률 전망(10년 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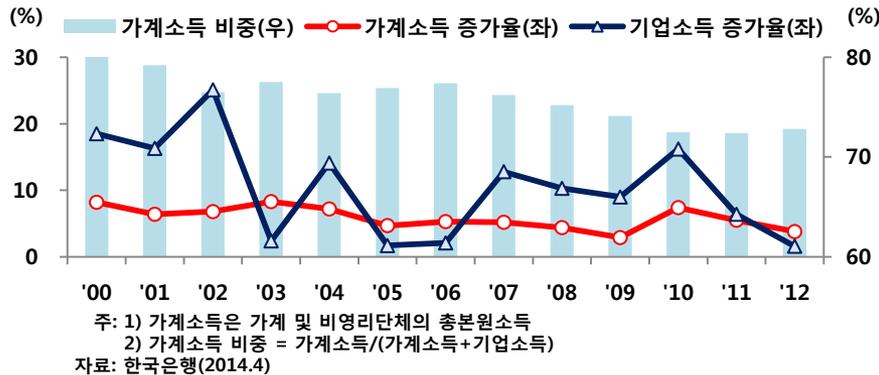
	2014		2015			
	현재	4/4	1/4	2/4	3/4	4/4
평균	2.52	2.78	2.96	3.11	3.25	3.58
최고	2.56	3.10	3.30	3.50	3.65	3.75
최저	2.48	2.10	2.30	2.40	2.50	3.20

주: Barclays, 골드만 삭스, UBS 등 주요 투자은행의 평균값임.  
자료: 국제금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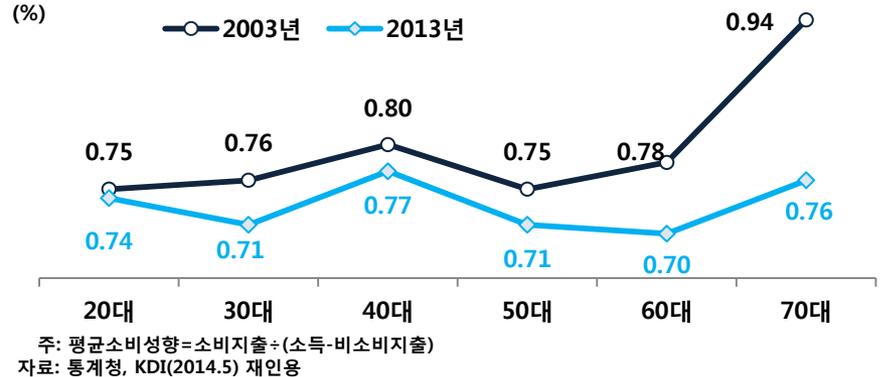
## 주거환경 변화, 고령화,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은 제한적

- 명목임금 증가율 둔화로 인한 가계소득 증가세 제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비 부담 확대, 사업소득, 재산소득 증가 정체, 전세가 상승 및 월세 비중 증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민간소비의 본격적 회복은 어려워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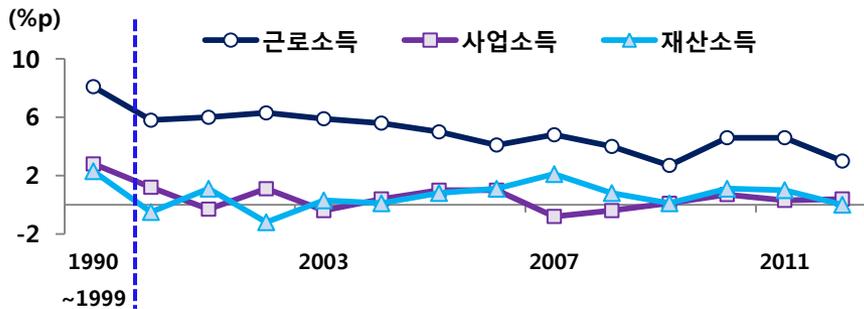
### 가계소득 비중 및 가계소득 · 기업소득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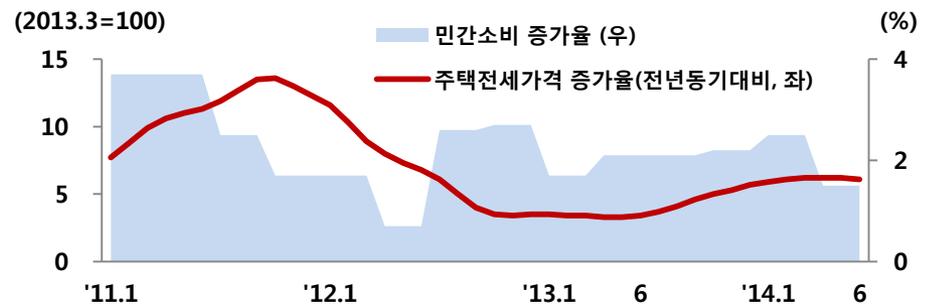
### 가구주 연령별 평균 소비성향



### 가계소득 원천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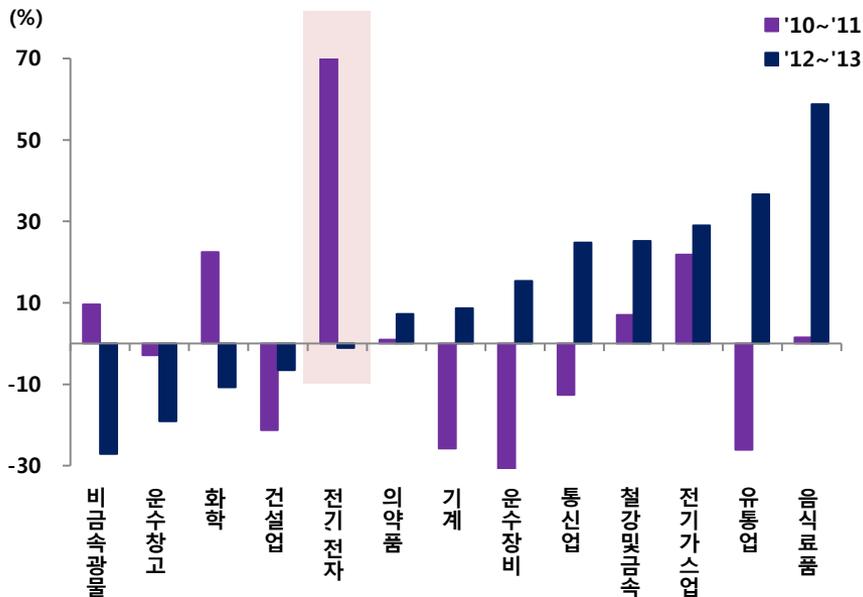
### 주택 전세가격 증가율과 민간소비 증가율



## 구조조정 없이는 설비투자 회복 제한적

- 지난 2년간 설비투자 부진은 전기 전자업종의 투자 부진 때문이었으며, 지연된 투자 재개로 설비투자 소폭 개선
- 제조업 수익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하였고,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설비투자의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워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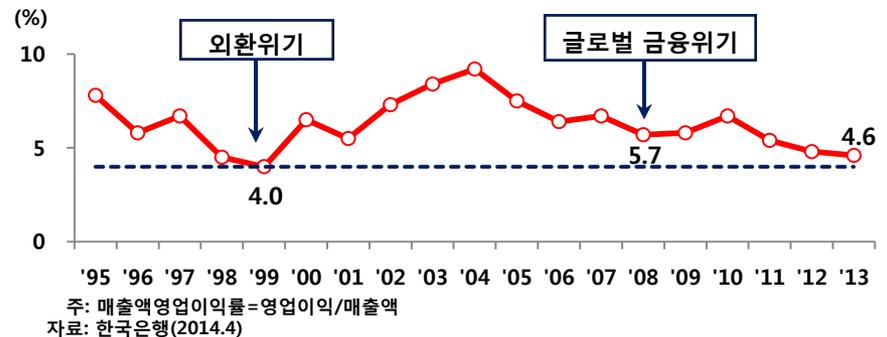
### 업종별 설비투자 증가율



주: 1) 상장기업 대상  
 2) 설비투자액은 현금흐름표상 "유형자산취득을 위한 현금유출액 - 유형자산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액"으로 계산하였음. 설비 관련 자산을 구하기 위해 유형자산에서 설비와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구축물 등의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현금흐름을 차감하여야 함. 그러나 Dataguide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유형자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현금흐름"까지만 제공하고 있어 그림에 사용된 데이터에는 토지와 건물구축물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로 인한 데이터상의 왜곡이 있을 수 있음.

자료: Dataguide Pro

### 매출액영업이익률 장기추세



### 한계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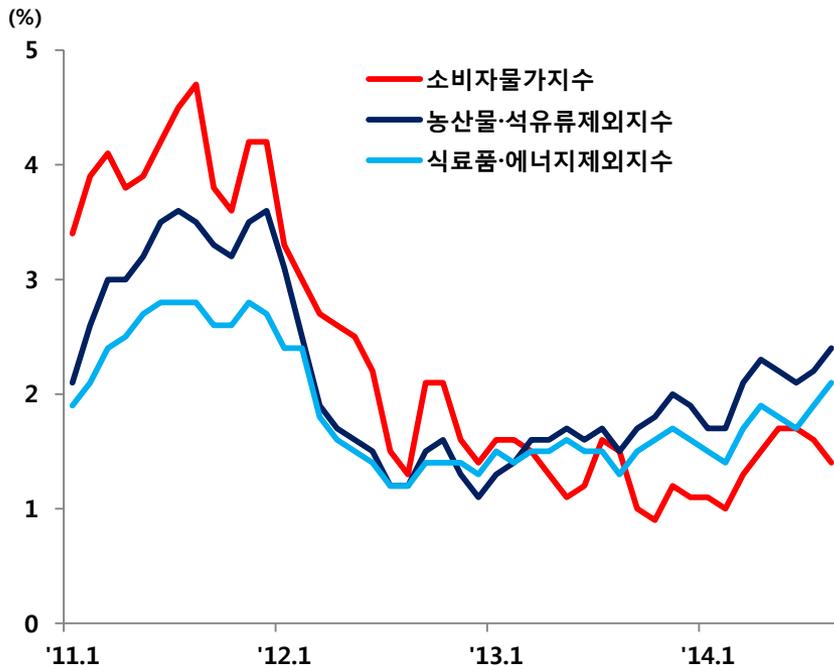


주: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함.  
 자료: 한국은행(2014.4)

## 소비자물가상승률 소폭 상승

- 소비자물가는 지난 2년간의 기저효과와 완만한 생산자물가 회복세로 2013년에 비해 소폭 오르고 있으나 상승률이 2%를 여전히 하회
  - 그러나 농산물·식품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2%를 상회하며 오름세 지속
- 최근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는 원자재 가격 등 공급측면 요인에 기인

### 근원인플레이션율



주: 인플레이션율은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 물가변동요인

(단위: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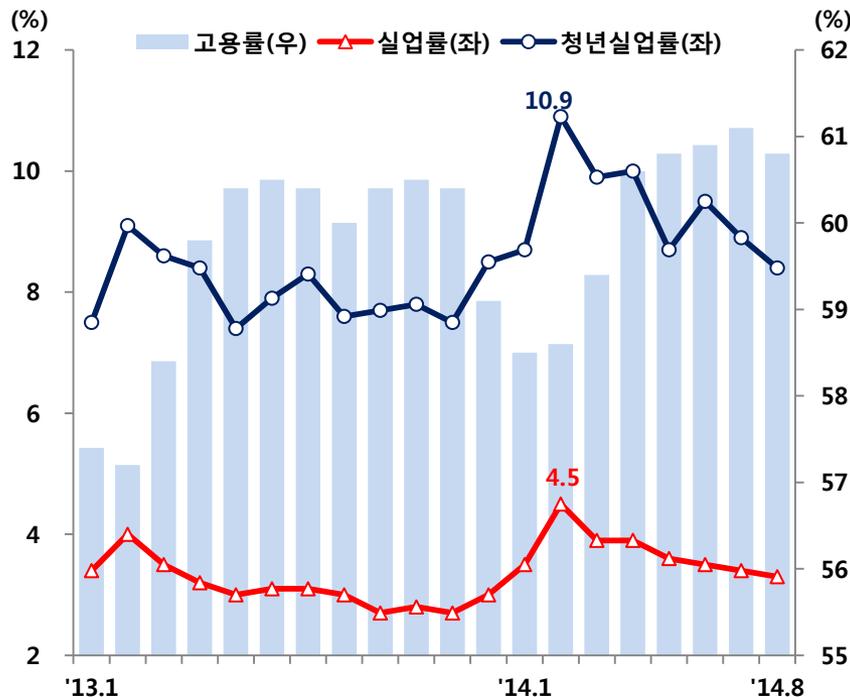
		2013			2014		
		연간	상반	하반	상반	1/4	2/4
수요 요인	경제성장률	3.0	2.4	3.5	3.7	3.9	3.6
	해외수요(상품수출)	4.6	6.5	2.7	3.8	3.9	3.8
	국내수요 <sup>1)</sup>	2.8	1.8	3.8	2.9	3.6	2.2
	명목임금	3.9	4.2	3.6	2.4	2.9	1.8
공급 (비용) 요인	원유도입단가 <sup>2)</sup>	-4.0	-7.2	-0.6	0.3	-3.0	3.8
	기타원자재가격 <sup>3)</sup>	-1.0	0.5	2.9	-2.7	-4.4	-1.0
	원/달러 환율	-2.8	-3.4	-2.3	-4.8	-1.4	-8.2
	농축수산물가격	-0.6	0.8	-2.1	-3.5	-4.7	-2.2
	주택가격 <sup>4)</sup>	0.4	-0.2	0.6	0.9	0.6	0.3

주: 1) 민간소비+정부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지식생산물투자  
 2) 달러 기준  
 3) IMF 기타 원자재(원유제외) 가격지수  
 4) 국민은행 주택가격 기준, 전기말월대비  
 자료: 한국은행(2014.7)

## 고용여건 소폭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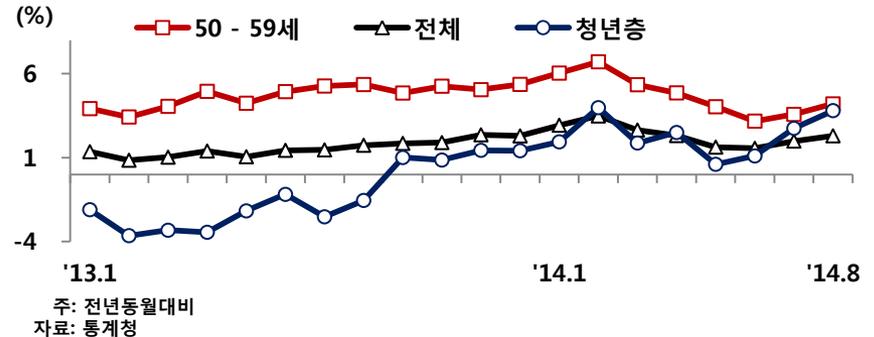
- 2014년들어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고용여건이 개선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하여 고용률이 오히려 하락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취업자수 증가는 청년층보다는 50~59세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취업자수는 증가하였으나 명목임금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가계소득 개선은 소폭에 그침.

###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 취업자 증가율 추이



주: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 취업자수 및 명목임금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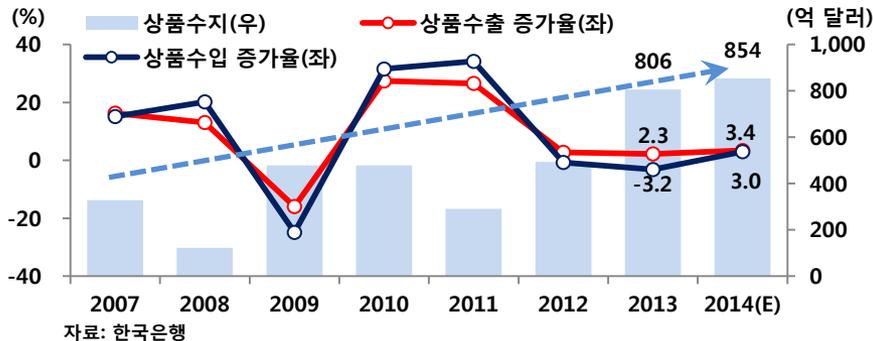


주: 취업자수 증가, 명목임금 증가율은 전년동분기대비  
자료: 통계청,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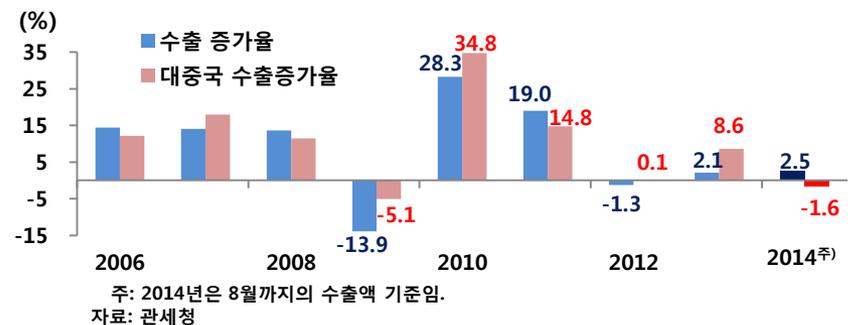
## 내수 부진과 교역조건 개선에 의한 상품수지 흑자 확대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확대
-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2014년 1~8월에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하였으나 최근 중국의 수출이 회복되고 있음.
- 상품수지 확대 원인은 내수 부진에 의한 GDP 대비 수출비중 확대와 교역조건 개선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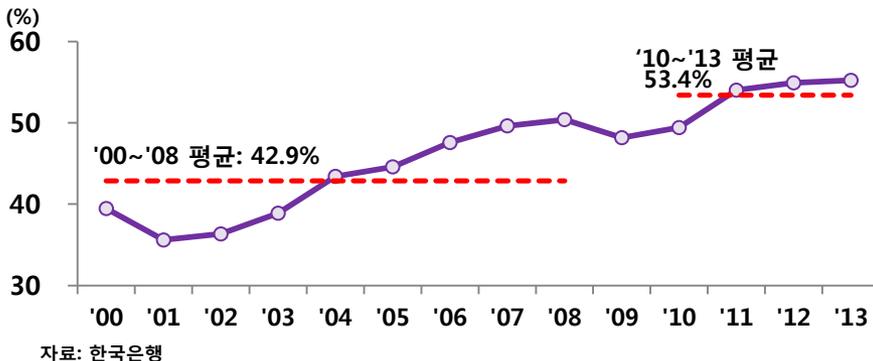
### 수출입 증가율과 상품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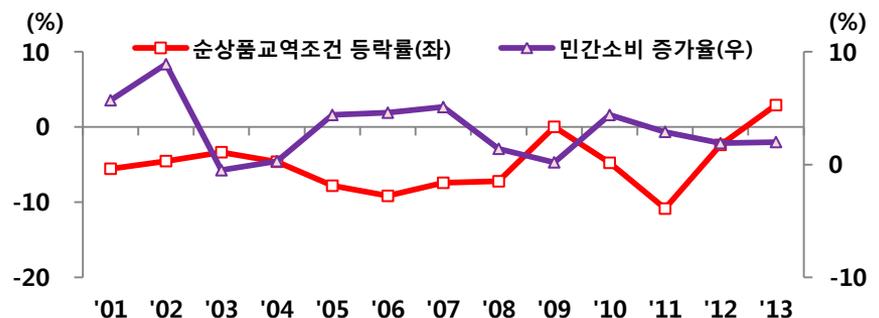
### 수출 증가율 추이



### GDP대비 수출 비중



### 교역조건 등락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 국내 주식시장 상대적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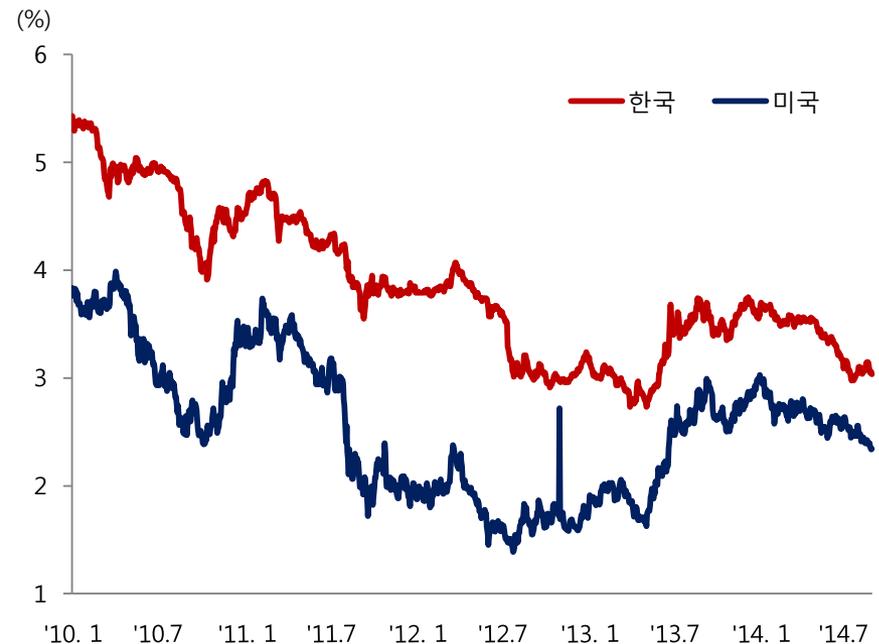
- 선진국 주식시장은 경기회복 기대,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주가 상승세를 지속한 반면, 국내 주식시장은 국내기업의 실적부진,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은 미국 국채 수익률과 동조적인 모습을 보임.

### 코스피 및 글로벌 주가



주: 대한민국은 KOSPI지수, 미국은 다우지수, 선진국과 신흥국은 MSCI 기준  
자료: Bloomberg

### 한국 · 미국 국채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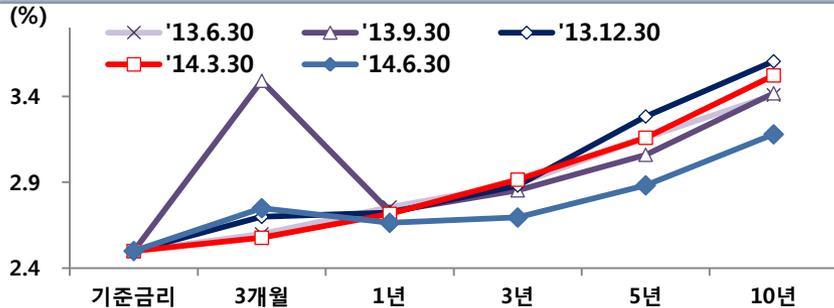


주: 국채수익률은 10년물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은행(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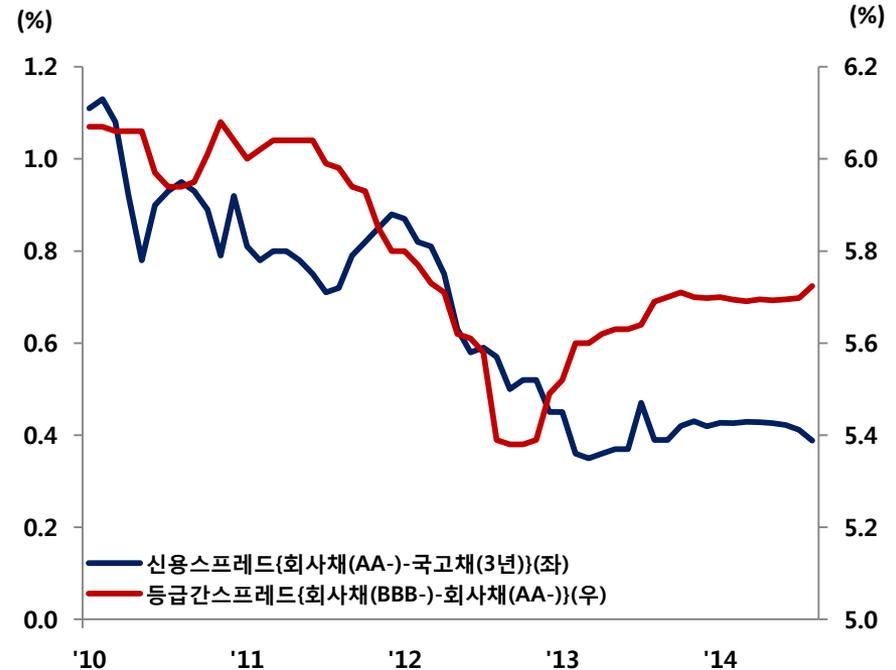
## 회사채시장 신용차별화 현상 심화

- 장기시장금리는 미국의 장기금리 하락으로 낮아진 반면, 단기시장금리는 2013년 5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경직적인 움직임을 지속하여 장단기 금리스프레드가 축소됨.
- 회사채시장에서 우량물 위주의 발행 편중으로 회사채시장의 신용차별화 현상이 심화되어 등급간 스프레드가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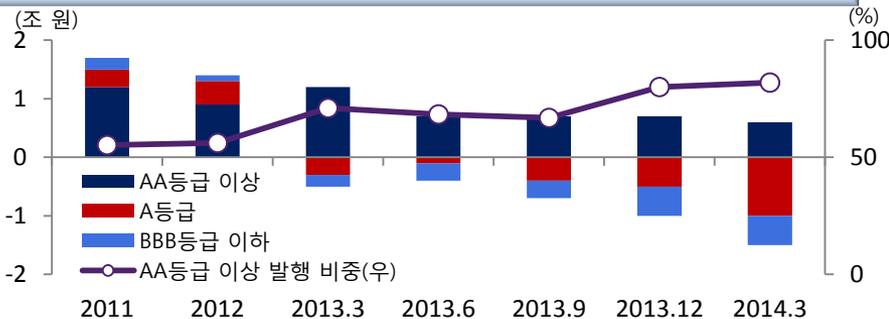
### 국고채 수익률 곡선 추이



### 스프레드 추이



### 회사채 순발행 현황 및 우량물 발행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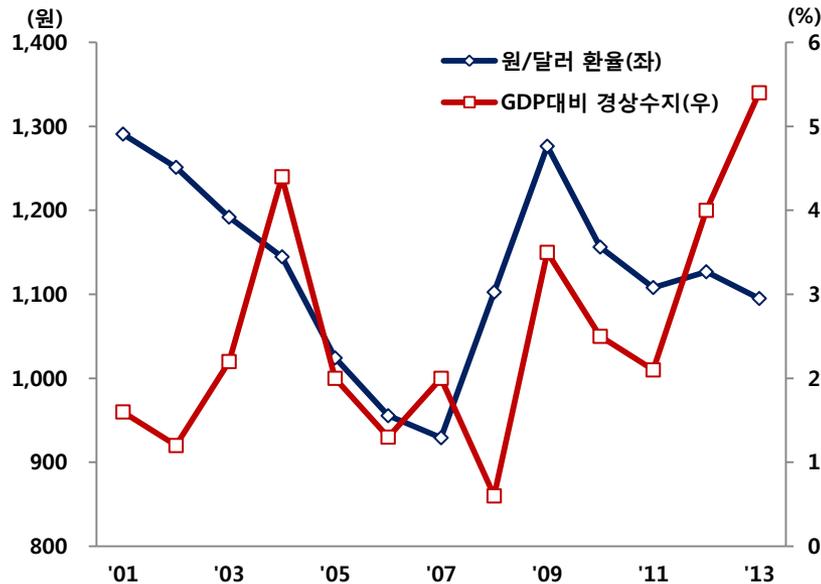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은행(2014)

자료: 한국은행

## 원화 강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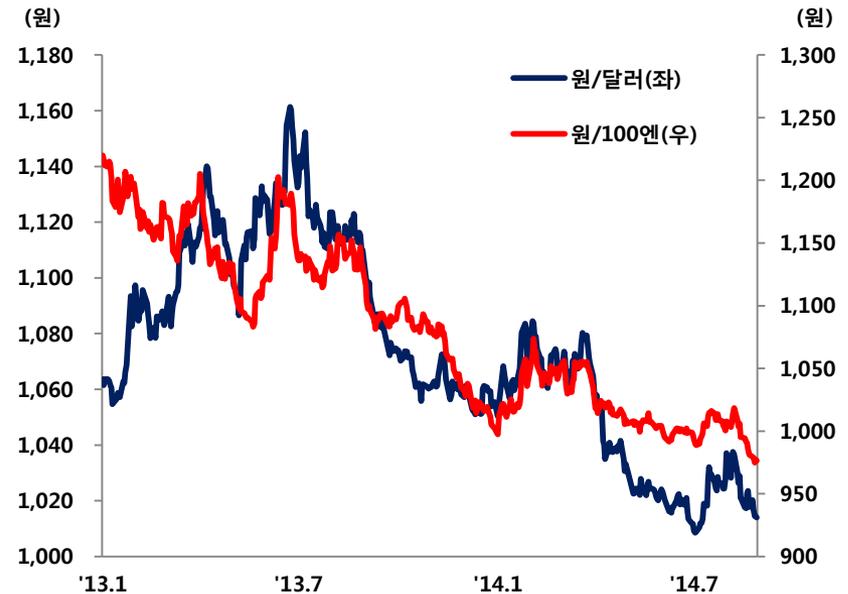
- 2014년 원/달러 환율은 신흥국 통화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의 하락 요인이 부각되며 하락세를 나타내어 1월~8월 평균 1,042.6원 수준을 기록함.
- 2014년 8월 말 기준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의 절상률은 4.1%이며 일본 엔화 대비 원화 절상률은 2.8%임.

### GDP대비 경상수지와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OECD, 한국은행

###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수출 및 설비투자 소폭 개선

-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제한적 개선과 수출 증가로 2014년 3.6%, 2015년 3.7% 성장

(단위: %)

	'13	'14(E)	'15(F)	2015년 국내경제 전망과 전망의 근거
<b>실질GDP</b>	3.0	3.6	<b>3.7</b>	정부지출 및 수출주도의 성장세
<b>민간소비</b>	2.0	2.6	<b>2.9</b>	고용 개선, 물가안정, 가계부채 누증
<b>설비투자</b>	-1.5	6.0	<b>6.1</b>	투자 활성화 대책, 견조한 수출 증가세, 한계기업 증가
<b>건설투자</b>	6.7	2.1	<b>2.9</b>	정부 SOC 투자 소폭 증가, 주택 공급물량 축소
<b>지식생산물투자</b>	7.3	7.2	<b>8.0</b>	정부의 R&D 지원 정책 등
<b>재화수출</b>	4.5	6.3	<b>7.0</b>	-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가 - 설비투자 소폭 회복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
<b>재화수입</b>	1.2	5.4	<b>7.0</b>	
<b>고용률</b>	59.5	60.1	<b>60.6</b>	-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고용 증가 - 여성 및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고용 확대 정책
<b>실업률</b>	3.1	3.5	<b>3.3</b>	

##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와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

- 2015년 상품수지는 2014년 854억 달러보다 76억 달러 감소한 778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 원화 강세에 따른 해외여행 출국자수 증가 등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는 2014년 88억 달러보다 30억 달러 확대될 전망이다.
- 경상수지는 106억 달러 감소한 660억 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 2015년 경상수지 전망

[단위: 억 달러, %]

	2011	2012	2013	2014(E)	2015(F)
경상수지	186.6	508.4	798.8	766.0	660.0
상품수지	290.9	494.1	805.7	854.0	778.0
수출	5,871 (26.6)	6,035 (2.8)	6,171 (2.3)	6,380 (3.4)	6,635 (4.0)
수입	5,580 (34.2)	5,541 (-0.7)	5,367 (-3.2)	5,526 (3.0)	5,858 (6.0)
서비스수지	-122.8	-52.1	-79.3	-88.0	-118.0

## 소비자물가상승률 소폭 상승

- 2015년 경기가 소폭 개선되고 원화절상 추세 완화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4년 1.6% 대비 0.4%p 상승할 전망.
- 2015년 국고채(3년) 금리는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현 수준보다 상승할 것이며 연간 평균은 2014년 평균 2.6%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상고하저의 2014년과 달리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전망
  - 국고채 장단기 스프레드는 경제성장률 상승 등으로 다소 확대
- 2015년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감소하고 신흥국 통화 불안 가능성 등으로 2014년 1,049원보다 소폭 하락한 1,040원으로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12	'13	'14(E)	'15(F)
CPI	2.2	1.3	1.6	2.0

금리(%) 전망

	'12	'13	'14(E)	'15(F)
국채(3년)	3.1	2.8	2.6	2.6
우량 회사채(3년)	3.8	3.2	3.0	3.0

환율(원) 전망

	'12	'13	'14(E)	'15(F)
원/달러	1,127	1,095	1,049	1,040

## 국내경제 전망

(단위: 억 달러, %)

	2010	2011	2012	2013	2014(E)	2015(F)
실질GDP	6.5	3.7	2.3	3.0	3.6	3.7
민간소비	4.4	2.9	1.9	2.0	2.6	2.9
설비투자	22.0	4.7	0.1	-1.5	6.0	6.1
건설투자	-3.7	-3.4	-3.9	6.7	2.1	2.9
지식생산물투자	7.9	6.9	8.6	7.3	7.2	8.0
재화수출	13.5	17.1	4.4	4.5	6.3	7.0
재화수입	19.1	17.6	1.9	1.2	5.4	7.0
고용률	58.7	59.1	59.4	59.5	60.1	60.6
실업률	3.7	3.4	3.2	3.1	3.5	3.3
경상수지	288.5	186.6	508.4	798.8	766.0	660.0
상품수지	479.2	290.9	494.1	805.7	854.0	778.0
수출(증가율)	4,638(27.4)	5,871(26.6)	6,035(2.8)	6,171(2.3)	6,380(3.4)	6,635(4.0)
수입(증가율)	4,159(31.6)	5,580(34.2)	5,541(-0.7)	5,366(-3.2)	5,526(3.0)	5,858(6.0)
소비자물가	3.0	4.0	2.2	1.3	1.6	2.0
회사채 수익률	4.7	4.4	3.8	3.2	3.0	3.0
국고채 수익률	3.7	3.6	3.1	2.8	2.6	2.6
원/달러 환율	1,156	1,108	1,127	1,095	1,049	1,040

## 위험 요인

-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기업부채, 엔화 약세 등이 위험요인이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중국의 성장 둔화, 이라크 및 우크라이나 지역 지정학적 불안 등이 위험요인이며, 경기 하방 리스크가 상방 리스크보다 클 것으로 보임.
- 다른 전망기관과의 가장 큰 차이는 민간소비 회복 정도에 대한 시각 차

2015년 주요기관의 국내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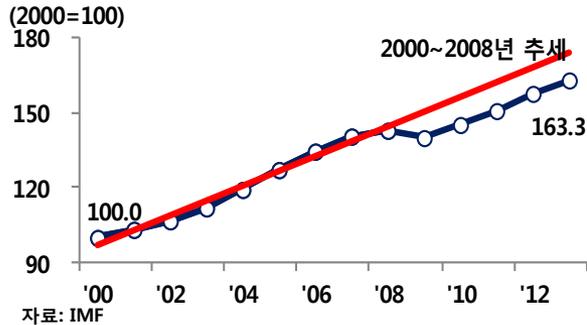
	한국은행		보험연구원		KDI		기획재정부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실질GDP(%)	3.8	4.0	3.6	3.7	3.7	3.8	3.7	4.0
민간소비(%)	2.3	3.6	2.6	2.9	2.7	3.2	2.0	3.3
소비자물가(%)	1.9	2.7	1.6	2.0	1.6	2.3	1.8	2.3
국고채 수익률(%)	-	-	2.6	2.6	-	-	-	-
원/달러 환율(원)	-	-	1,049	1,040	-	-	-	-

주: 한국은행, KDI,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수익률과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원달러 환율 2014년 1,039원, 2015년 1,059원으로 전망하였고, 국고채 수익률은 2014년 2.7%, 2015년 3.0%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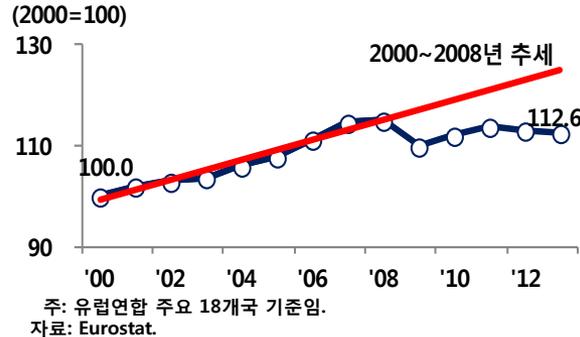
##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 회복세

- 국내경제 성장 회복세는 금융위기 이전 성장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주요 선진국의 회복세보다 상대적으로 양호
- 무리한 성장률 제고보다는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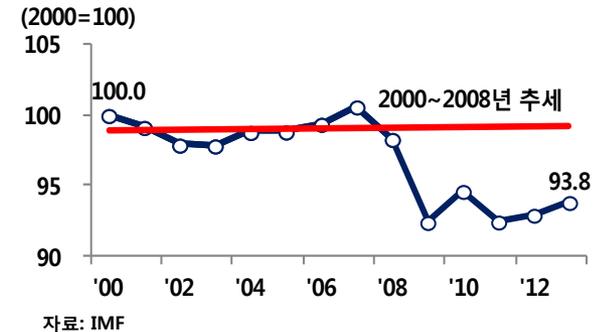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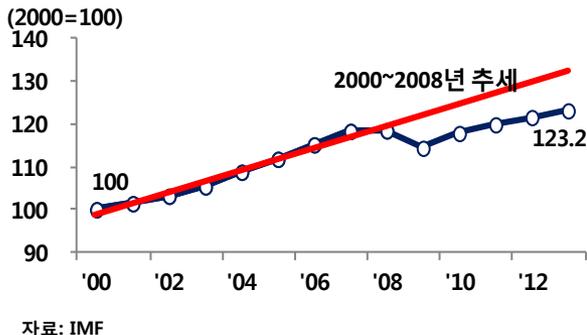
###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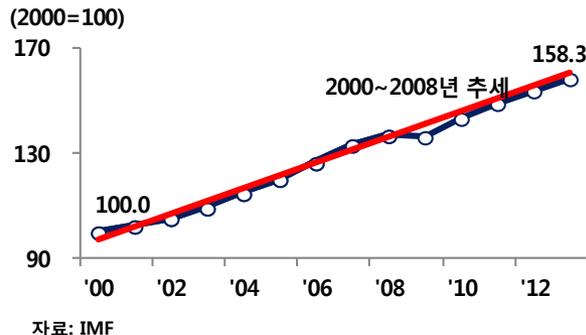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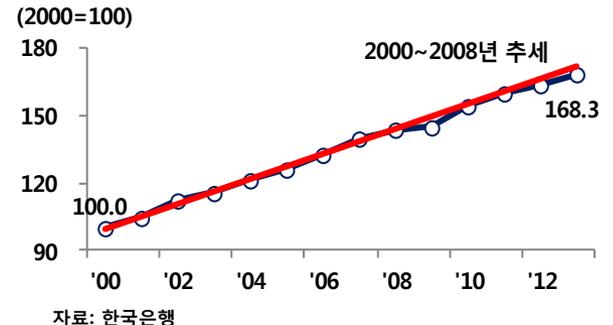
### 선진국



### 세계



### 한국



# Ⅱ. 보험산업 동향과 전망

1. 최근 주요 특징 및 전망 근거
2. 생명보험 동향과 전망
3. 손해보험 동향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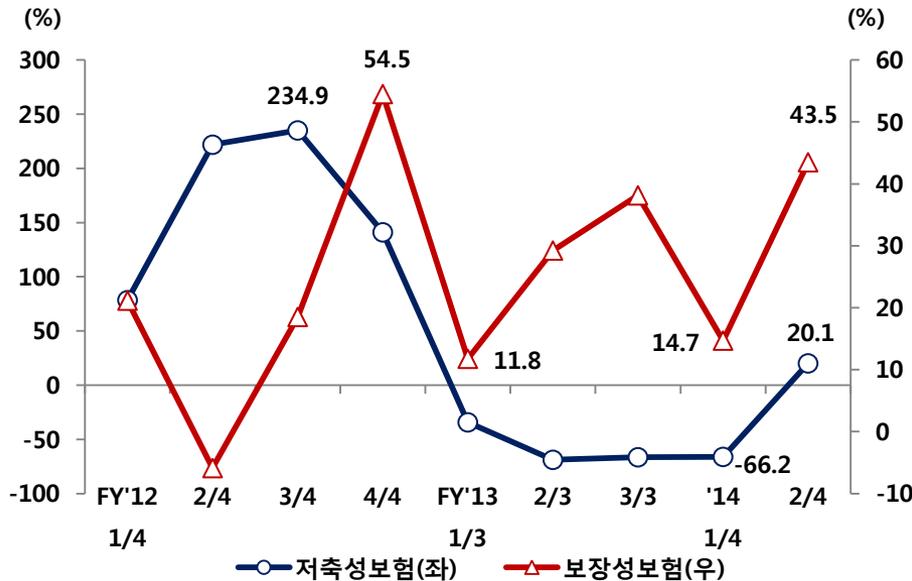
# 1. 최근 주요 특징 및 전망근거

- FY2013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3분기이기 때문에 FY2013과 FY2012와 비교는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기간과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의 비교임

## 2014년 상반기 보험산업 초회보험료 증가율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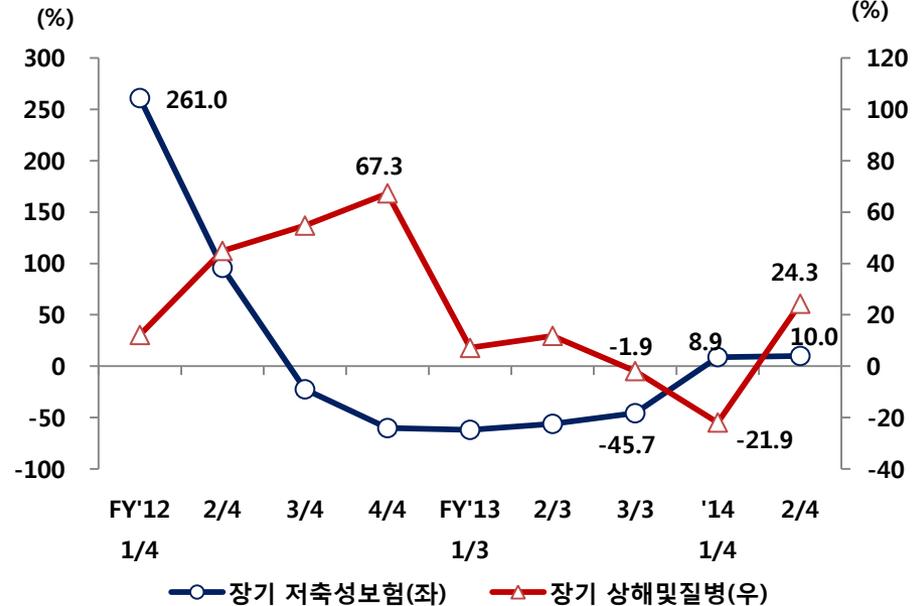
- 2014년 들어 생·손보 모두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증가율은 2012년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른 기저효과가 소멸되면서 회복세를 나타냄.
- 생명보험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 증가율은 질병보험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임.
- 손해보험 장기 상해·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 시행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져 증가세로 전환

### 생명보험 개인보험 초회보험료 증가율 추이



주: 1) 회계연도 개편으로 FY2013은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음.  
2) FY2013 3/3분기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진입함.

###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초회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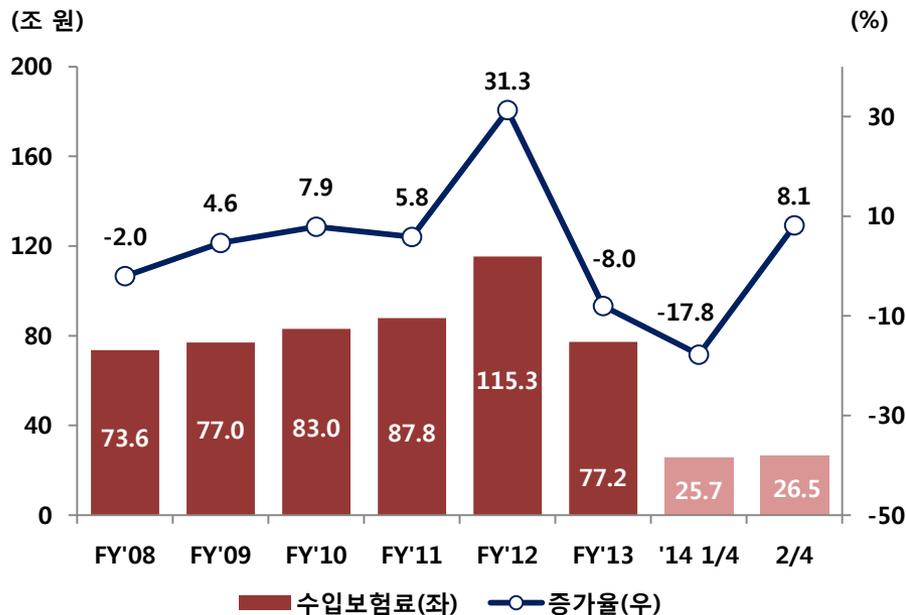


주: 회계연도 개편으로 FY2013은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음.

## 2014년 상반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소폭 회복세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012년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영향으로 FY2012와 FY2013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2014년 2/4분기 들어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냄.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장기간 지속된 고성장의 기저효과로 FY2010 이후 둔화되었으나, 2014년 들어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소폭 회복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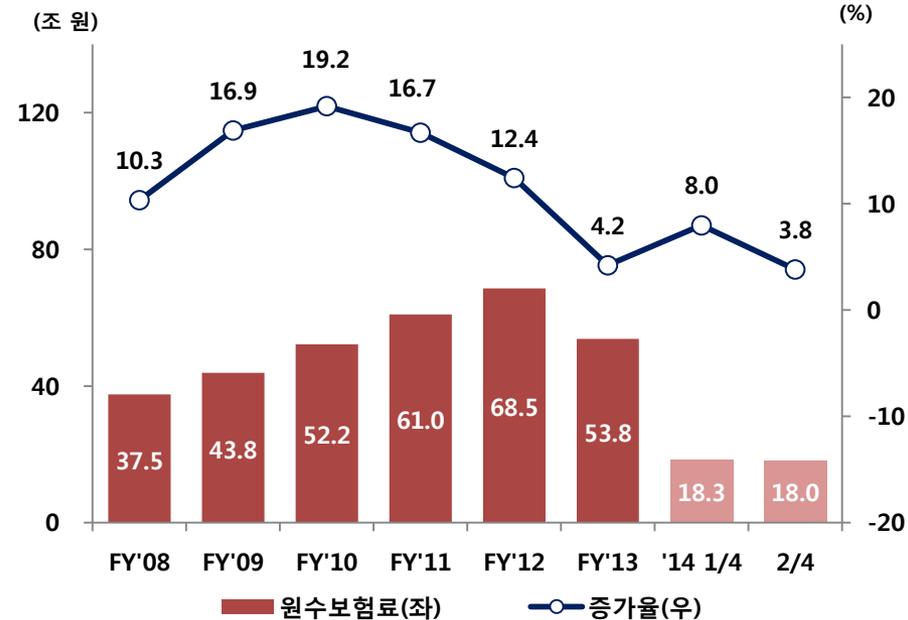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추이



주: 1)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FY'13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수치와 비교함.

2) 2014년 1/4분기와 2/4분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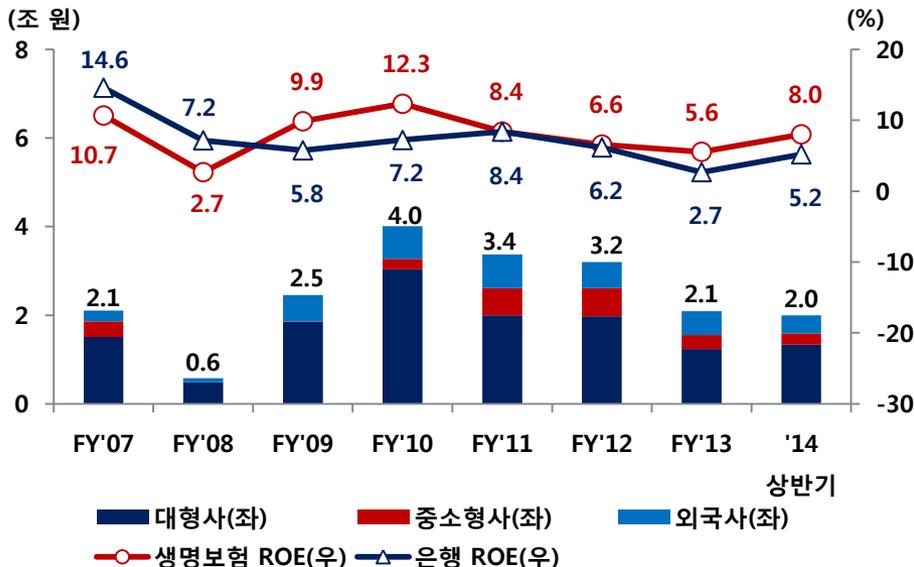
주: 1)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FY'13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수치와 비교함.

2) 2014년 1/4분기와 2/4분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 2014년 상반기 보험회사 당기순이익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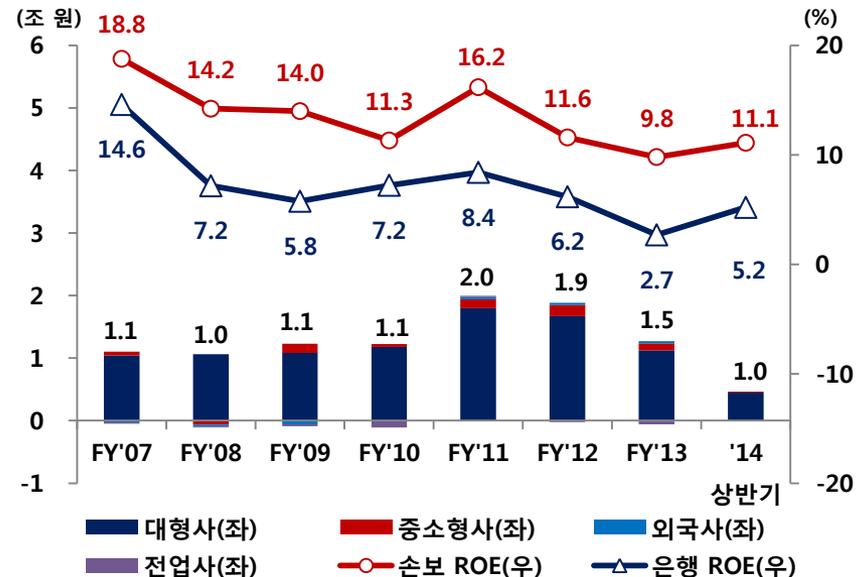
- 2014년 상반기 생명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주식처분이익 증가 등에 따른 투자영업이익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23.3% 증가함.
- 2014년 상반기 손해보험회사(18개사 기준) 당기순이익도 투자영업이익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8.4% 증가함.
- 2014년 생·손보 ROE(연환산 추정치)는 모두 당기순이익 증가에 힘입어 FY2013 대비 상승함.

###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추이



주: 1) 회계연도 개편으로 FY2013은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음.  
2) 은행 ROE는 1월~12월까지 기간 기준이며, FY'13과 '14 6월 ROE는 연환산 추정치임.

###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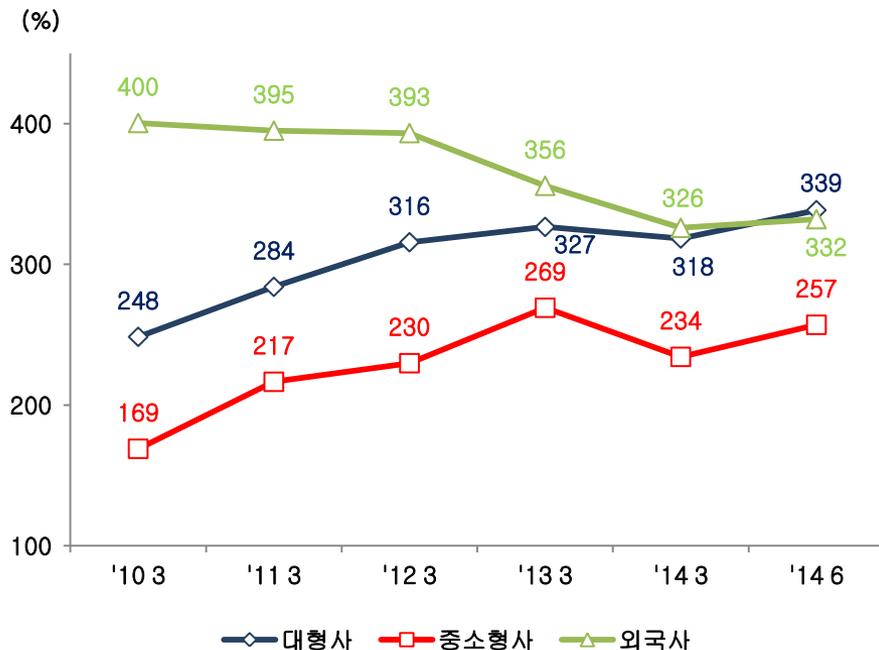


주: 1)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손해보험회사 기준임.  
2) 회계연도 개편으로 FY2013은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음.  
3) 은행 ROE는 1월~12월까지 기간 기준이며, FY'13과 '14 6월 ROE는 연환산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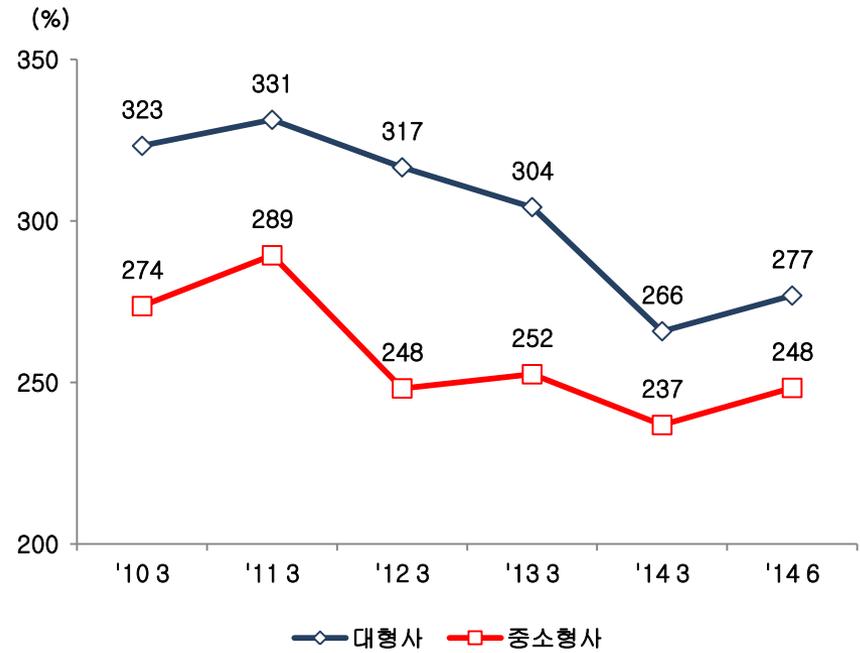
## 2014년 상반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RBC비율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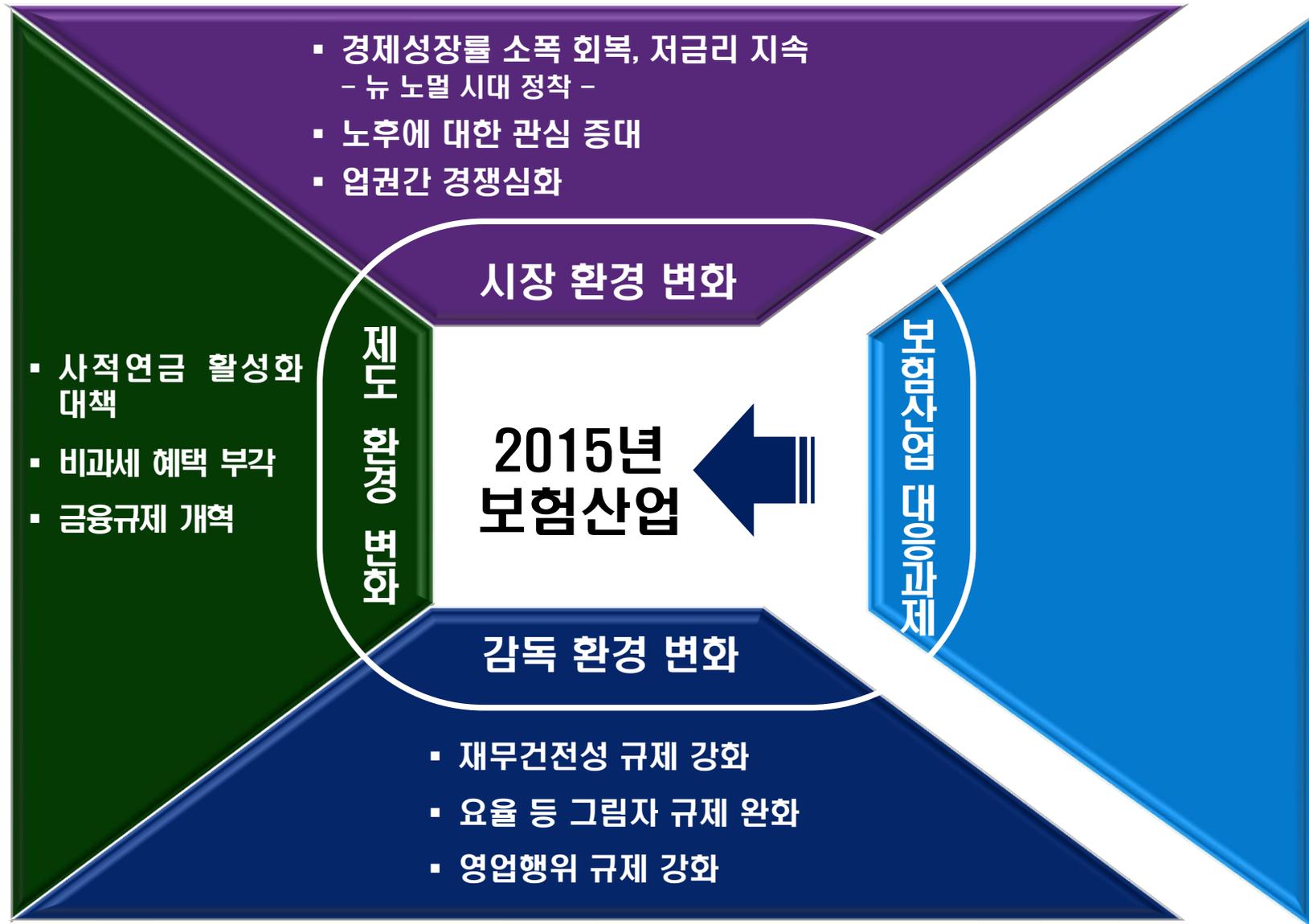
- 생명보험의 경우 2014년 들어 RBC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2014년 2/4분기부터 RBC비율이 상승세로 전환됨.
  - 가용자본은 당기순이익의 이익잉여금 적립과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 발생 등으로 증가함.
  - 요구자본도 자산증가에 따른 투자금액 확대에 늘어났으나, 가용자본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 ※ 감독당국의 재무건전성 강화 계획이 시행될 경우 요구자본은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RBC 비율은 대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 RBC 비율 추이



### 손해보험 RBC 비율 추이





## 보험산업환경 변화의 영향 [전망근거]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무건전성 RBC비율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장기성 <sup>1)</sup>		자동차 보험	일반 손보	
				저축성	보장성			
시장환경	노후관심 증대	●	●	●	●			
	다양한 상품개발	▲	●	▲	●			
	판매채널 다양화	▲	●	▲	●	▲		
	경제성장률 상승	●	●	●	●	●	●	
	금리 상승	▲	▲	▲	▲			
제도환경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	▲	●	▲			
	요율 자율화	▲	●	▲	●			
	상대적 비과세 혜택 부각	●		●				
감독환경	재무건전성 강화	▪ 상품별 영향은 회사전략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수익성 하락 우려						X
	소비자 권익 강화							X

주: 1) 손해보험 장기성의 경우 전망요인 분석의 편의를 위한 중목 구분으로 저축성은 장기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을 말하며 보장성은 장기 상해·질병보험을 의미함.

## 2. 생명보험 동향과 전망

### 가. 개인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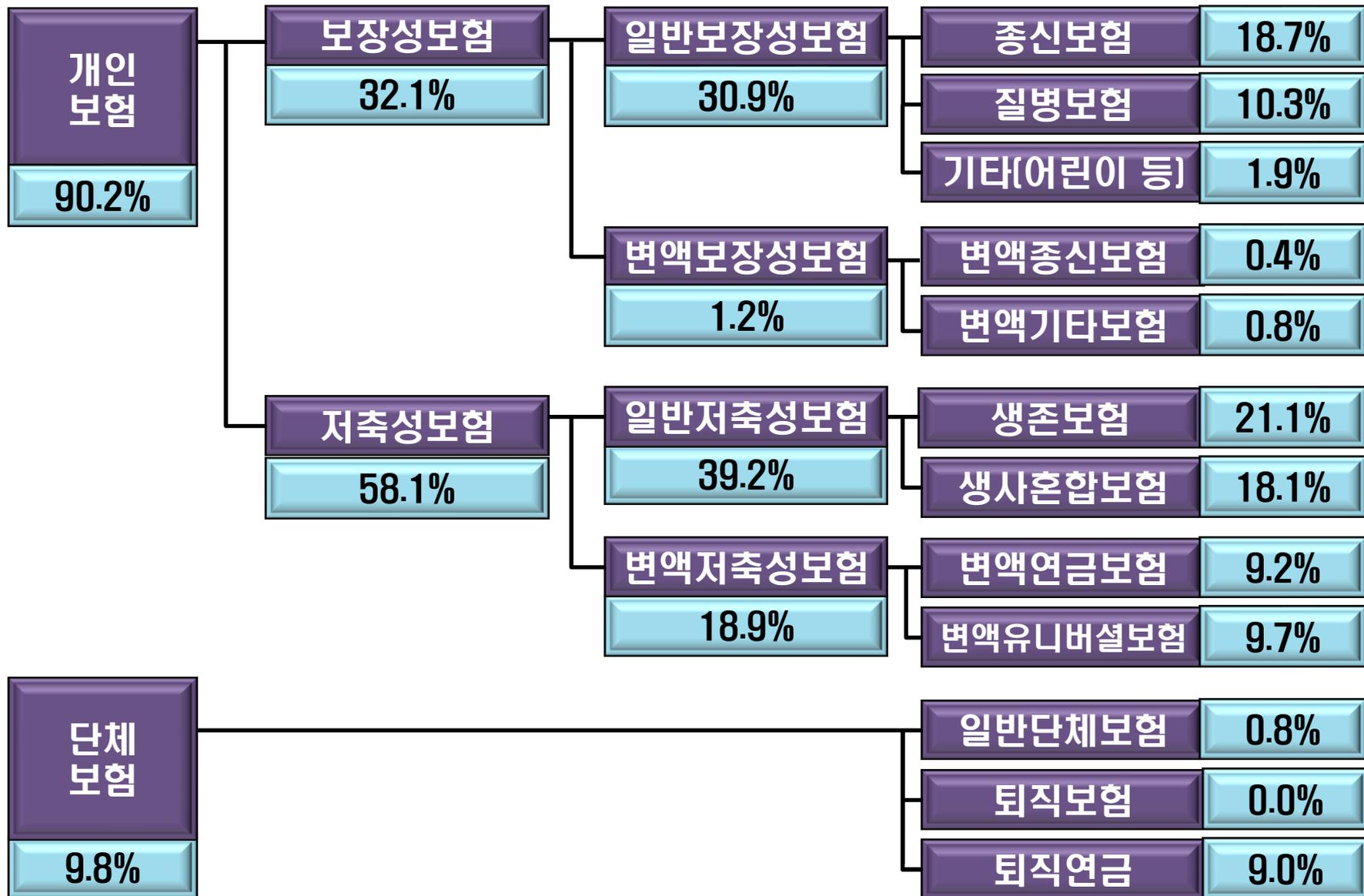
- 보장성보험
- 저축성보험

### 나. 단체보험

### 다. 생명보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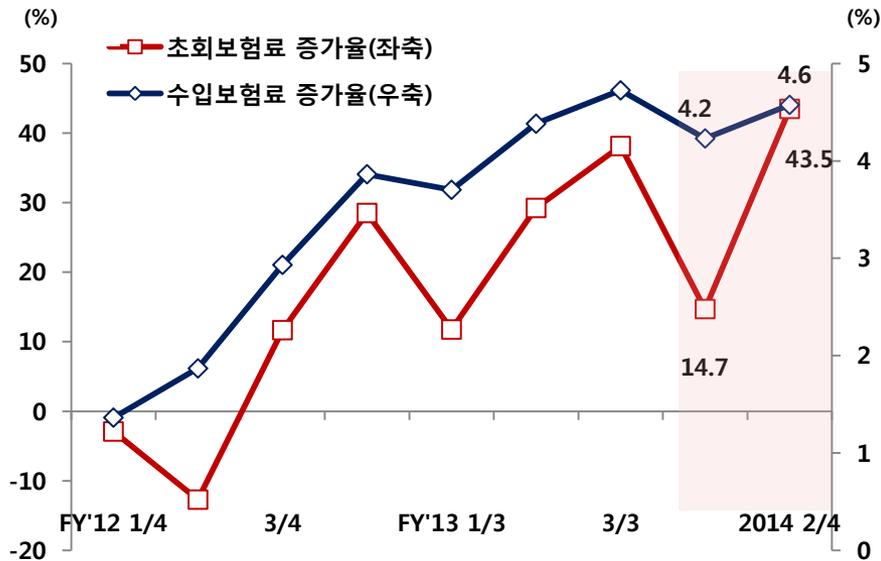
(FY2013기준)



## 2014년 보장성보험 신계약 증가로 성장세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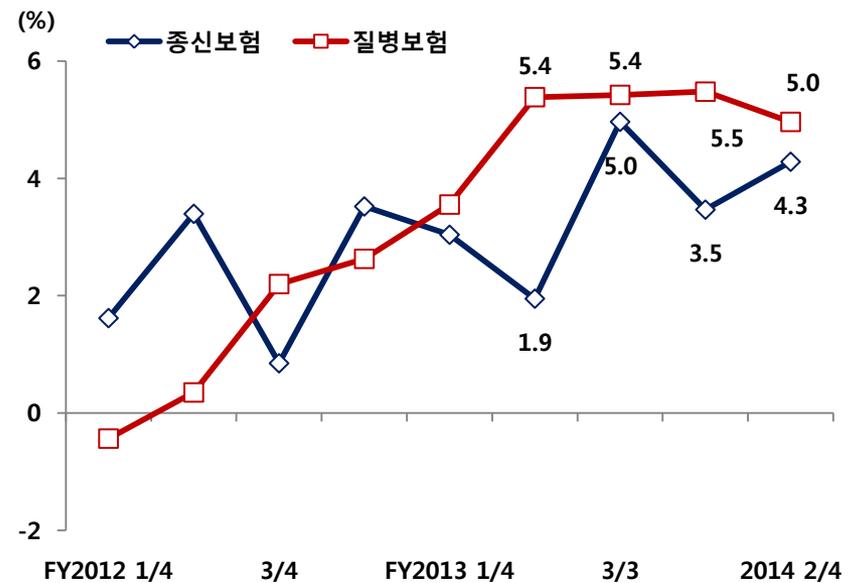
- 보장성보험은 노령층, 유병자대상 질병보험의 신계약 증가로 성장, 2014년 5.7%의 성장률이 예상됨.
- 2014년 상반기 질병보험 수입보험료는 5.2%, 이중 장기간병보험 19.4%, 암보험 3.9% 성장

보장성보험 보험료 추이



주: FY'12 분기 증가율은 농협생명보험을 제외한 수치임.

보장성보험 종목별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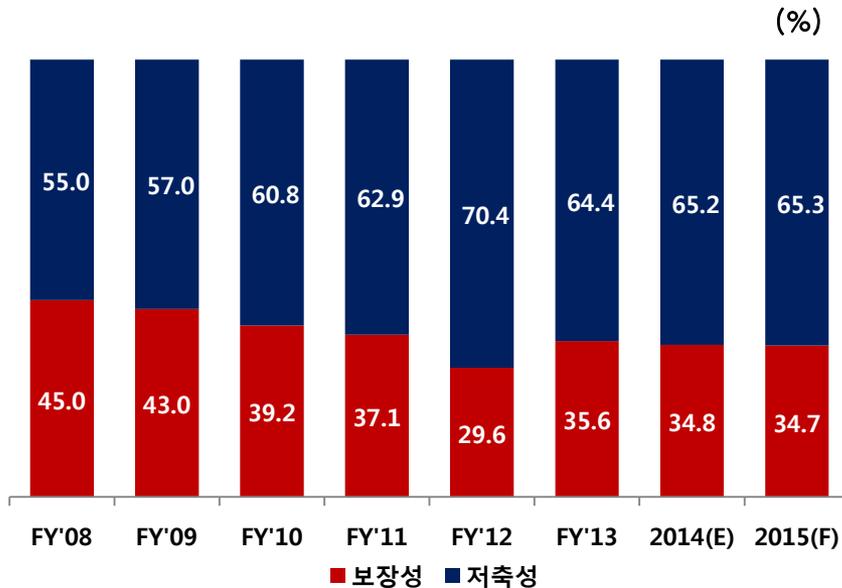


주: FY'12분기 증가율은 농협생명보험을 제외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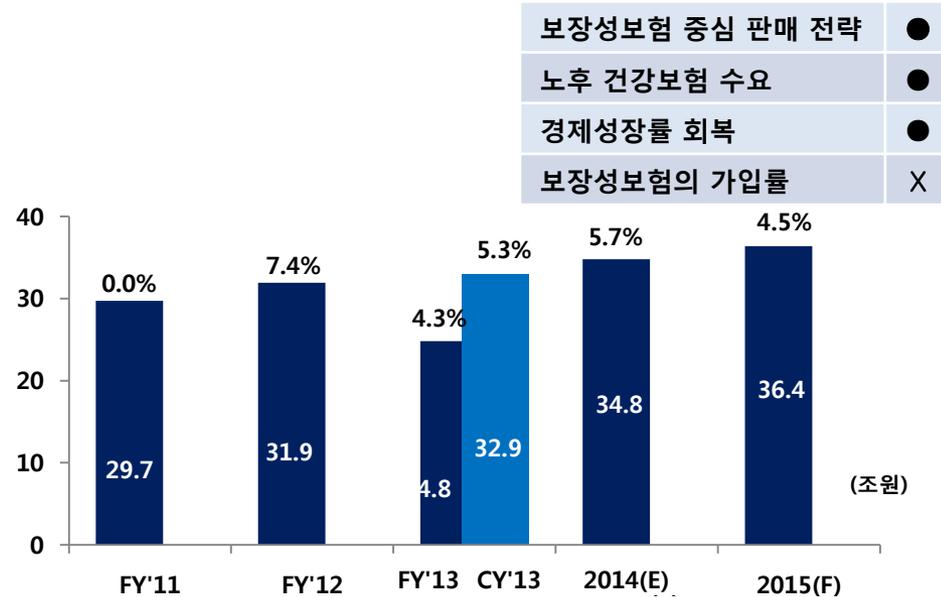
## 2015년 보장성보험 성장세 둔화

- 2015년 보장성보험 수요 창출 노력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연에도 불구하고, 주도적 혁신 상품 부재와 소비자 권익 강화로 판매가 제한되면서 4.5% 성장이 전망됨.
- 경제성장률 회복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보장성보험 가입률도 제고되어 성장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임.
  - 질병보험 개인별 가입률 67.9% (2013년) → 77.6% (2014년)

### 개인 보장성 및 저축성보험 비중 추이



### 보장성보험 성장률과 수입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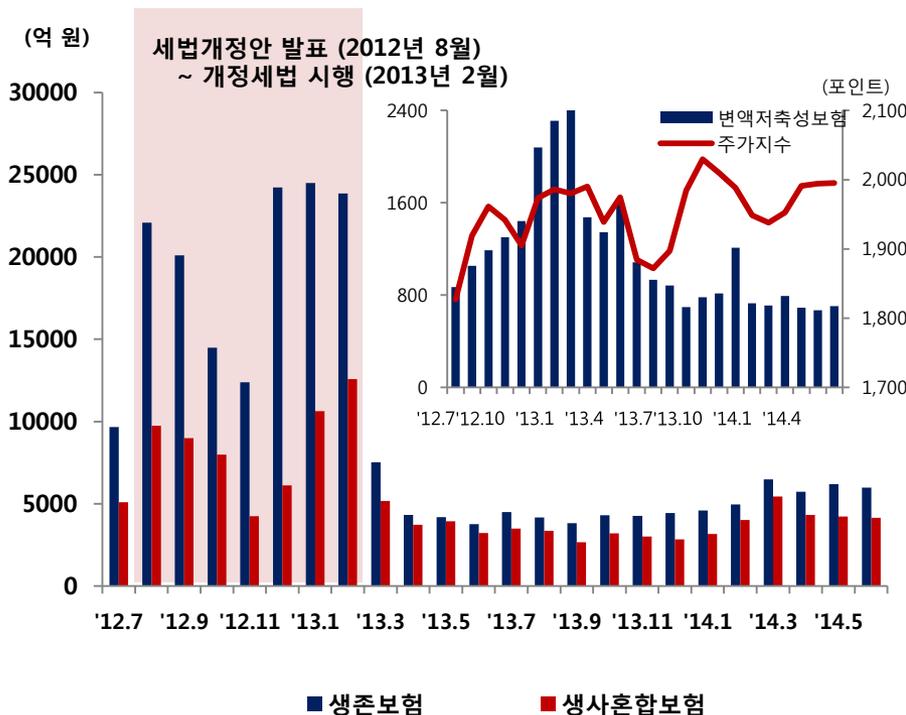
보장성보험 중심 판매 전략	●
노후 건강보험 수요	●
경제성장률 회복	●
보장성보험의 가입률	X

주: 1) FY'13는 2013년 4월 ~ 2013년 12월 실적이고 '14(E)는 2014년 1월 ~ 2014년 12월까지의 실적임.  
 2) CY'13는 2013년 1월 ~ 2013년 12월 실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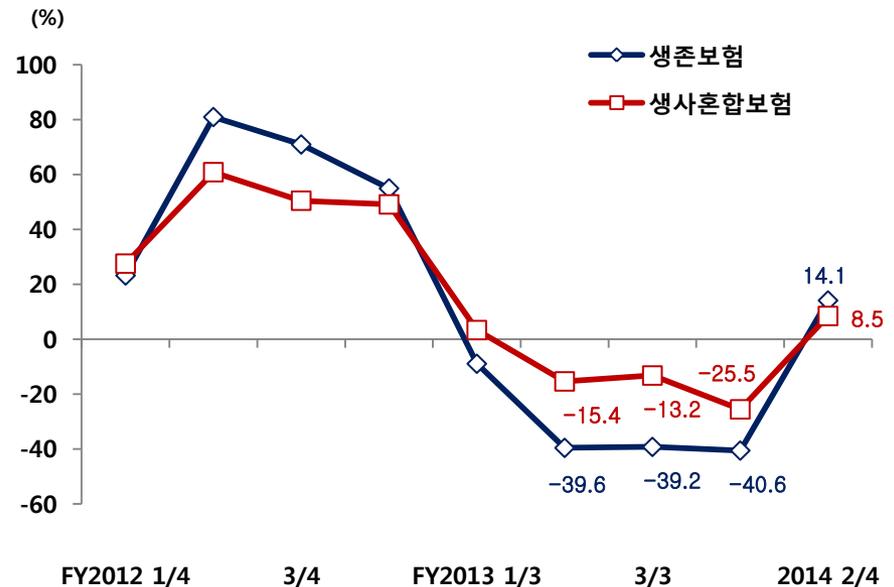
## 2014년 저축성보험 수요회복 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

- 2014년 저축성보험은 세제개편에 따른 FY2012의 일반저축성보험 기저효과가 1/4분기까지 크게 이어짐에 따라 2/4분기부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2.2%의 성장이 예상됨.

### 일반저축성보험 월별 초회보험료 추이



### 일반저축성보험 성장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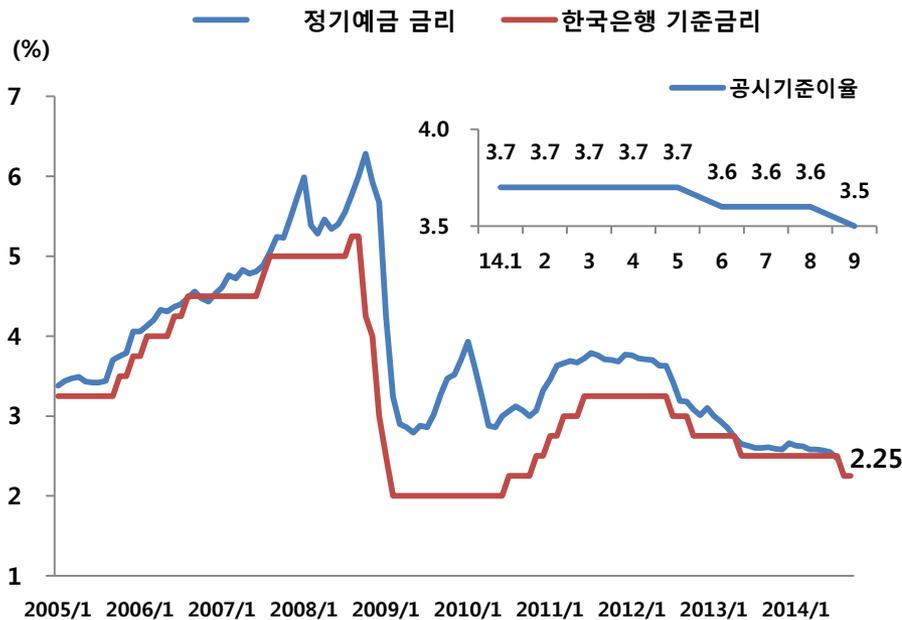


주: FY'12분기 증가율은 농협생명보험을 제외한 수치임.

## 금리경쟁력 유지 및 노후대비 수요 지속으로 저축성보험 견조한 성장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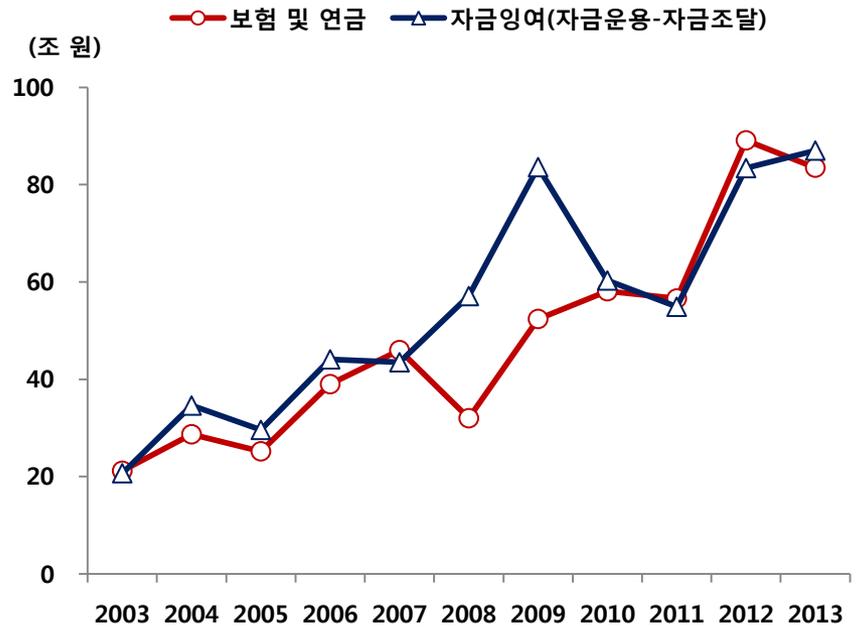
- 은행의 대출확대에 대한 우려로 예금유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기예금금리와 한국은행기준금리간 격차가 축소되고 있어 저축성보험의 금리경쟁력 유지
- 노후대비를 위해 가계 자금잉여 대부분이 보험 및 연금으로 축적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 기준금리와 정기예금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가계 자금잉여 및 보험 및 연금 자산 증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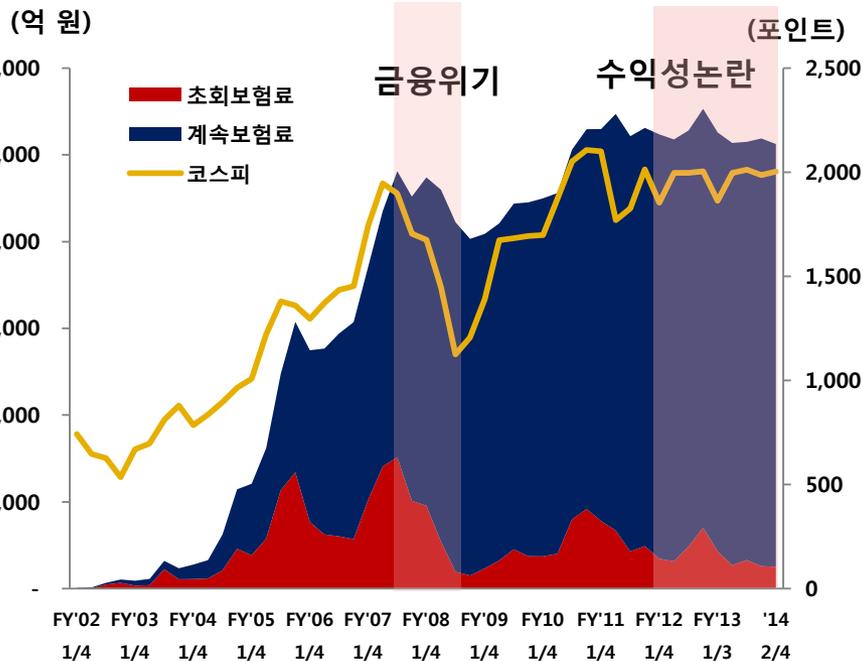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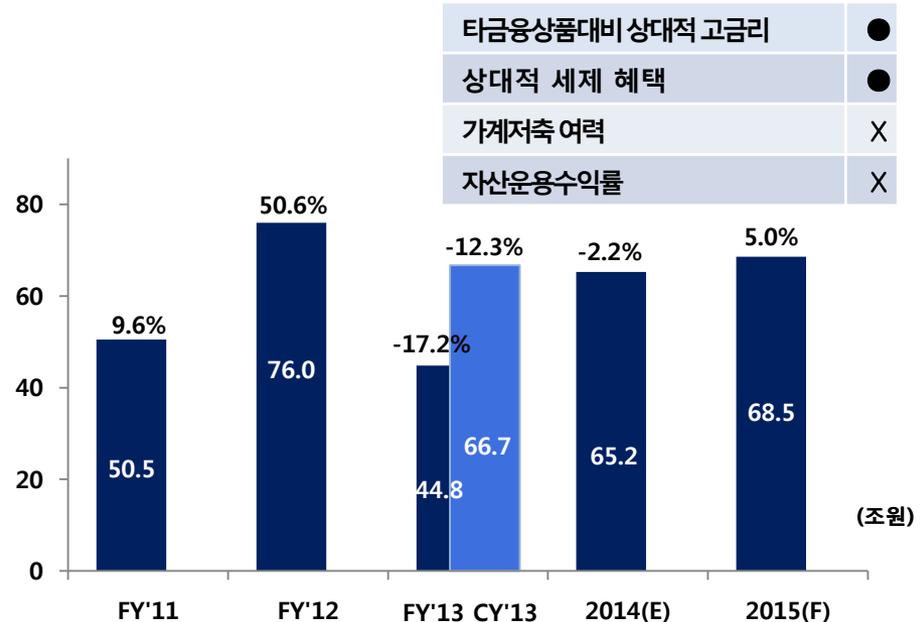
## 2015년 저축성보험 예년수준 성장세 회복

- 2015년에는 기저효과 소멸, 상대적 고금리 및 세제 혜택 등으로 일반저축성보험 수요가 회복 될 전망
  - 변액보험도 당분간 계속보험료 위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경제성장이 소폭에 그치고, 가계소득 증가 부진 등으로 저축여력 개선이 크지 않아 성장률은 5.0%에 그칠 것으로 보임.

###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 저축성보험 성장률과 수입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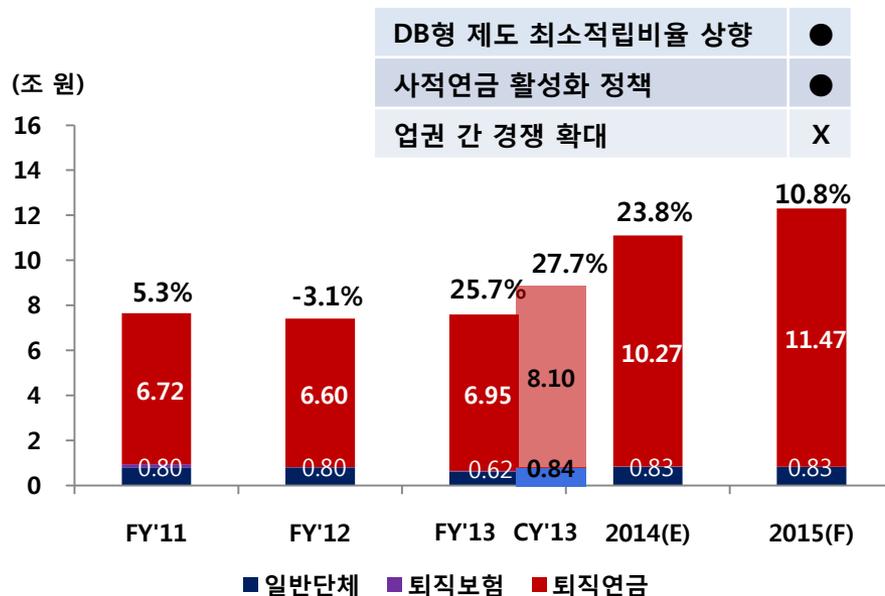
주: 1) FY'13는 2013년 4월 ~ 2013년 12월 실적이고 '14(E)는 2014년 1월 ~ 2014년 12월까지의 실적임.  
 2) CY'13는 2013년 1월 ~ 2013년 12월 실적임.

## 단체보험 2014년 23.8%, 2015년 10.8%로 고성장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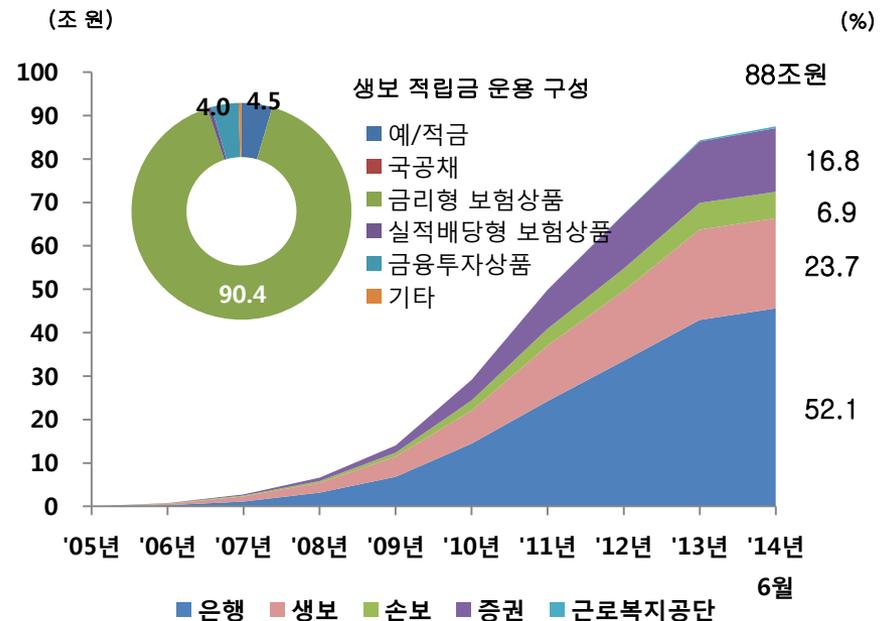
- 2014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 효과 지속과 금리 하락에 따른 적립금 납입 증가로 2013년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15년 말까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70%), 세액공제 퇴직연금 신설(300만원)\* 예정 등으로 사적연금시장 확대 가능 전망

\* 2015년 1월 이후 퇴직연금 납입분부터 세액공제 예상( '14. 8.27.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

### 단체보험 성장률과 수입보험료 전망



### 금융업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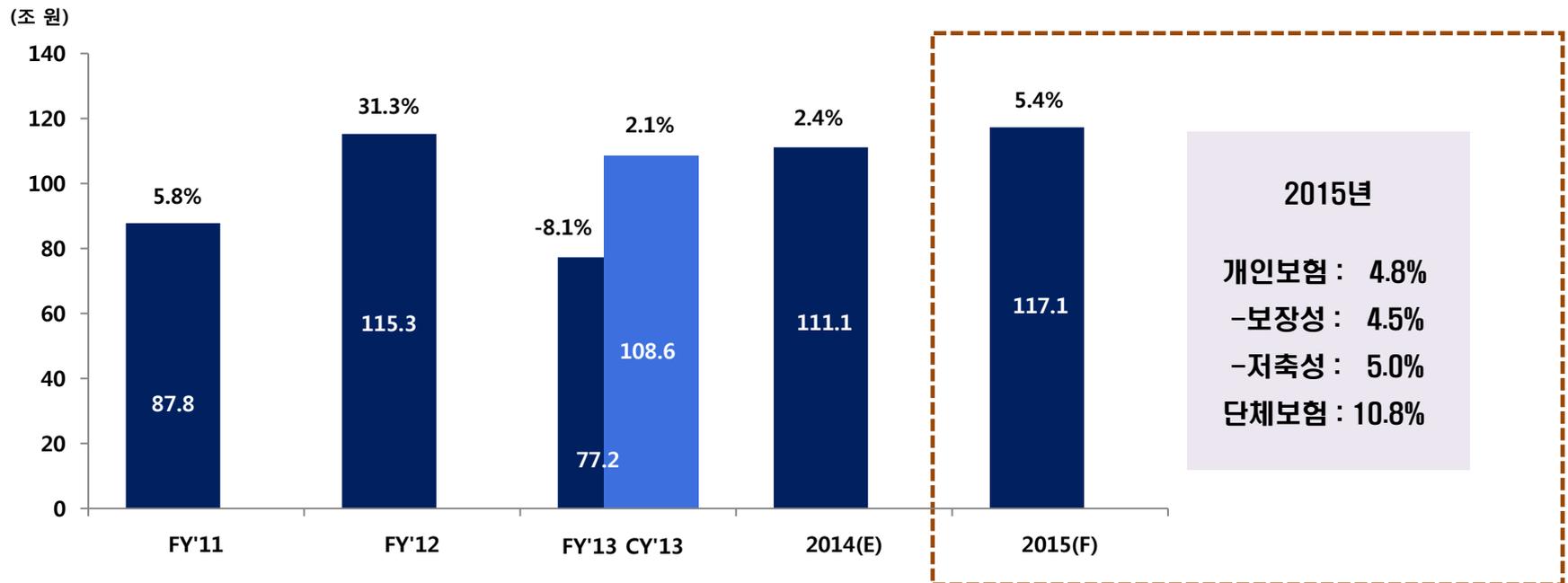


주: 1) FY'13는 2013년 4월 ~ 2013년 12월 실적이고 '14(E)는 2014년 1월 ~ 2014년 12월까지의 실적임.  
2) '13는 2013년 1월 ~ 2013년 12월 실적임.

## 2015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을 회복

- 2014년 생명보험은 보장성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 지속으로 인해 2.4%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임.
- 2015년은 저축성보험 성장세가 회복하고 단체보험이 퇴직연금 위주로 성장하면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4년에 비해 3.0%p 상승한 5.4% 증가가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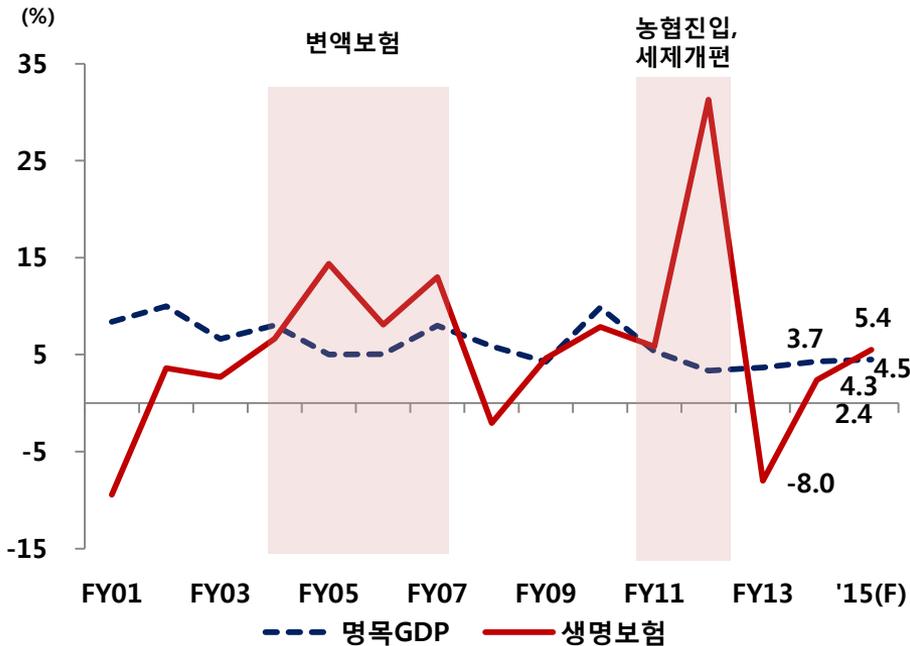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주: 1) FY'13는 2013년 4월 ~ 2013년 12월 실적이고 2014(E)는 2014년 1월 ~ 2014년 12월까지의 실적임.  
 2) CY'13는 2013년 1월 ~ 2013년 12월 실적임.

## 2015년 수입보험료 증가율 명목 경제성장률 상회

### 명목 경제성장률과 수입보험료



- 2014년 생명보험 성장률은 기저효과 여파로 인해 명목 경제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5년에는 명목 경제성장률 보다 높은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위험요인

#### 보장성 보험

- 혁신적 신상품 부재로 수요 창출 제한

#### 일반저축성 보험

- 저금리와 신 경험생명표 적용으로 보험상품 가격상승

#### 변액저축성 보험

- 증시의 박스권 탈출과 신뢰성 회복이 관건

#### 퇴직연금

- 사적연금시장 확대정책의 실행 여부 및 금융권경쟁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FY12	FY13	2013	2014(E)	2015(F)	2014(E) 연납화 초회보험료	2015(F) 연납화 초회보험료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107.9	69.6	99.6	100.1	104.8	17.9	18.6
	증가율	34.6	-10.6	0.2	0.4	4.8	-15.3	4.0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31.9	24.8	32.9	34.8	36.4	5.4	5.6
	증가율	7.4	4.3	5.3	5.7	4.5	-9.4	3.5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76.0	44.8	66.7	65.2	68.5	12.5	13.1
	증가율	50.6	-17.2	-2.1	-2.2	5.0	-17.6	4.2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7.4	7.6	9.0	11.1	12.3	7.5	8.2
	증가율	-3.1	25.7	27.7	23.8	10.8	1.7	8.4
생명보험계	수입보험료	115.3	77.2	108.6	111.1	117.1	25.5	26.8
	증가율	31.3	-8.0	2.1	2.4	5.4	-10.9	5.3

주: 연납화초회보험료=(1월납초회보험료 x 12)+(2월납초회보험료 x 6)+(3월납초회보험료 x 4)+(6월납초회보험료 x 2)+(연납초회보험료)+(일시납초회보험료/10)

# 3. 손해보험 동향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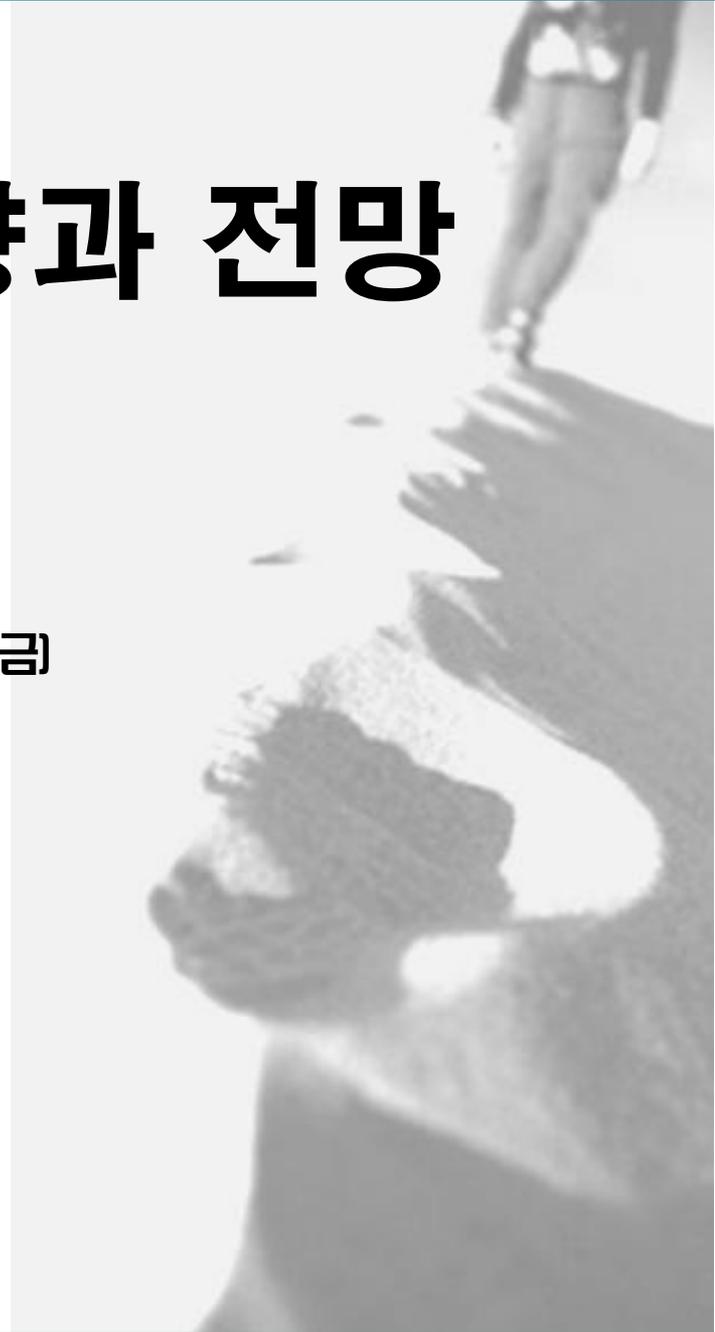
가. 장기손해보험

나. 연금부문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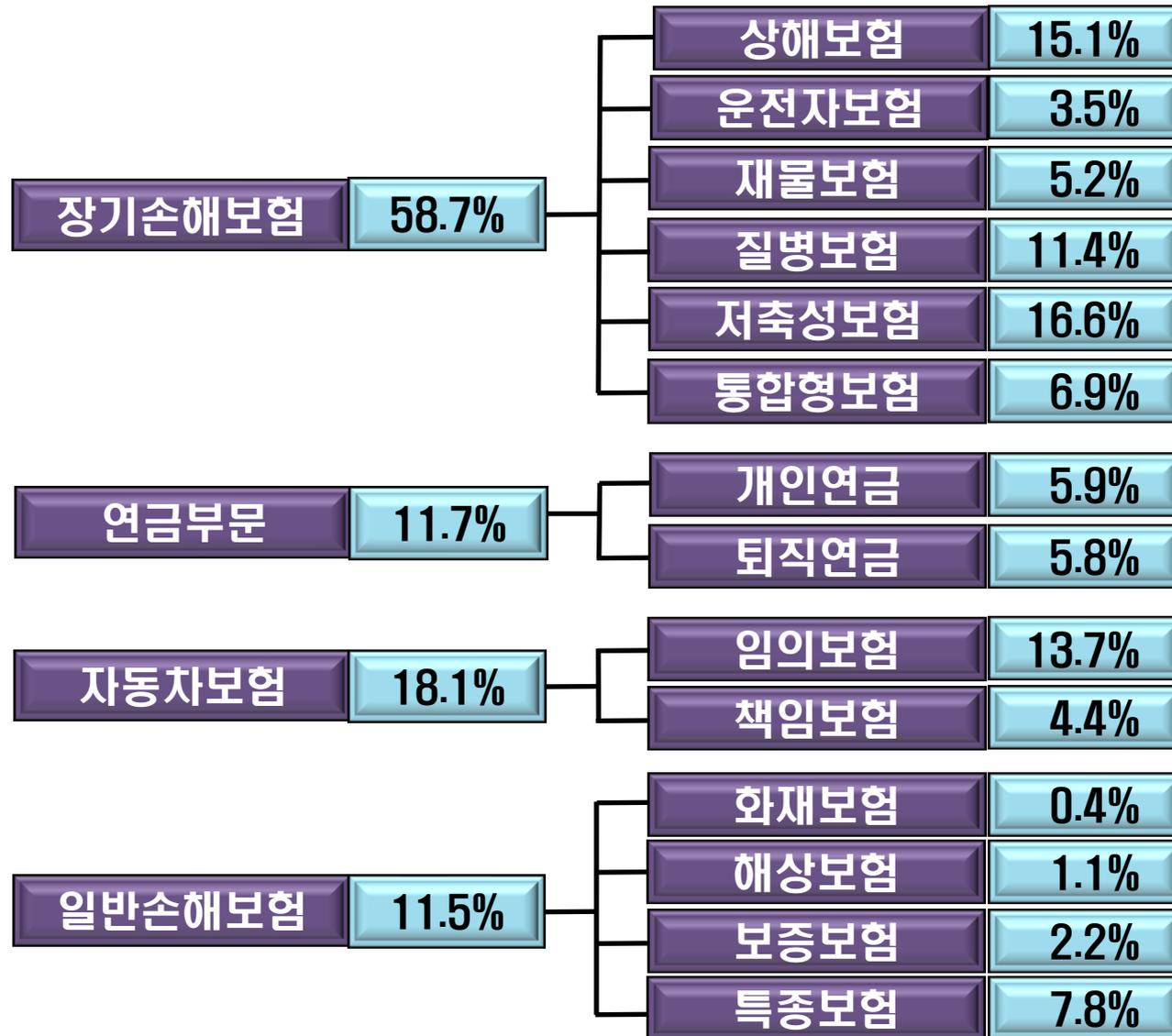
다. 자동차보험

라. 일반손해보험

마. 손해보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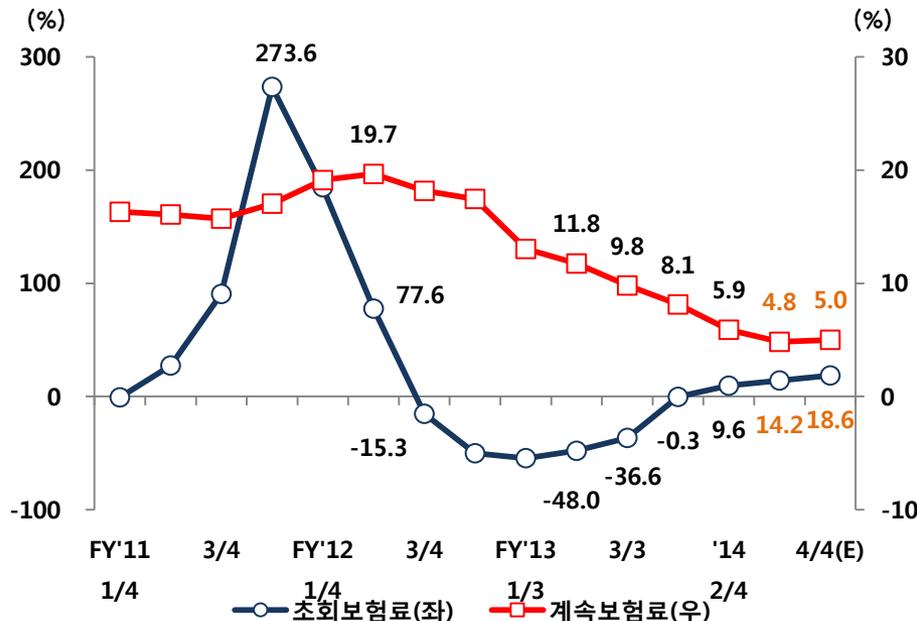
[FY2013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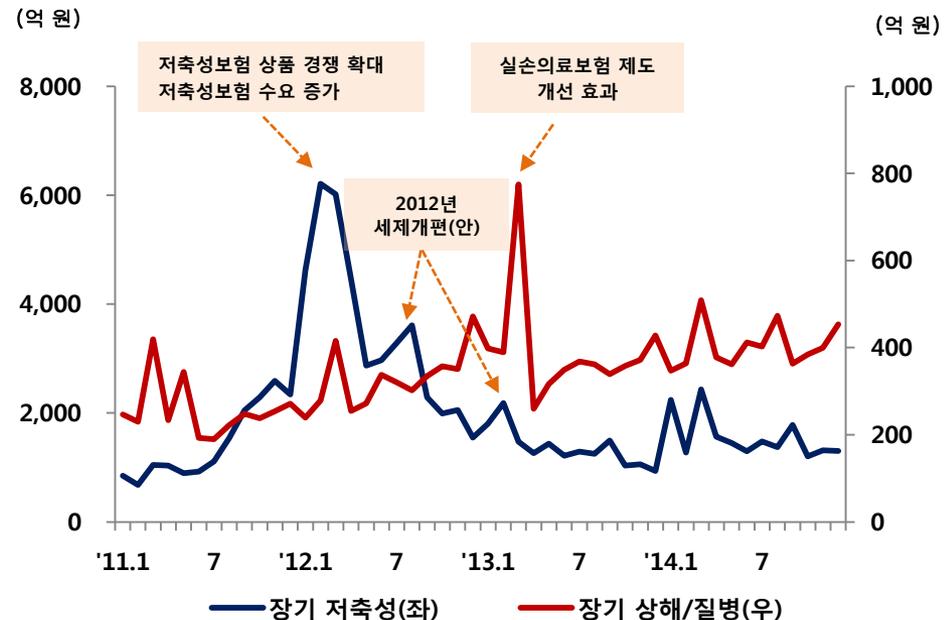
## 2014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소폭 상승

- 2014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초회보험료 소폭 회복으로 6.1% 증가 예상
  - 장기 상해·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 시행 직후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완만한 수요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장기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4년 들어 일부 회사들을 중심으로 소폭 회복세를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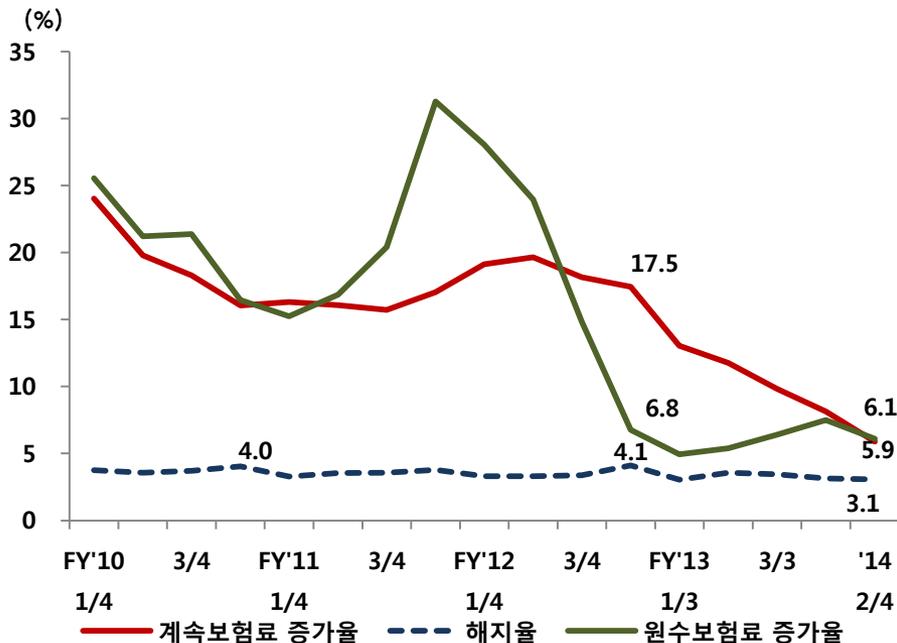
### 장기 저축성, 상해·질병 초회보험료(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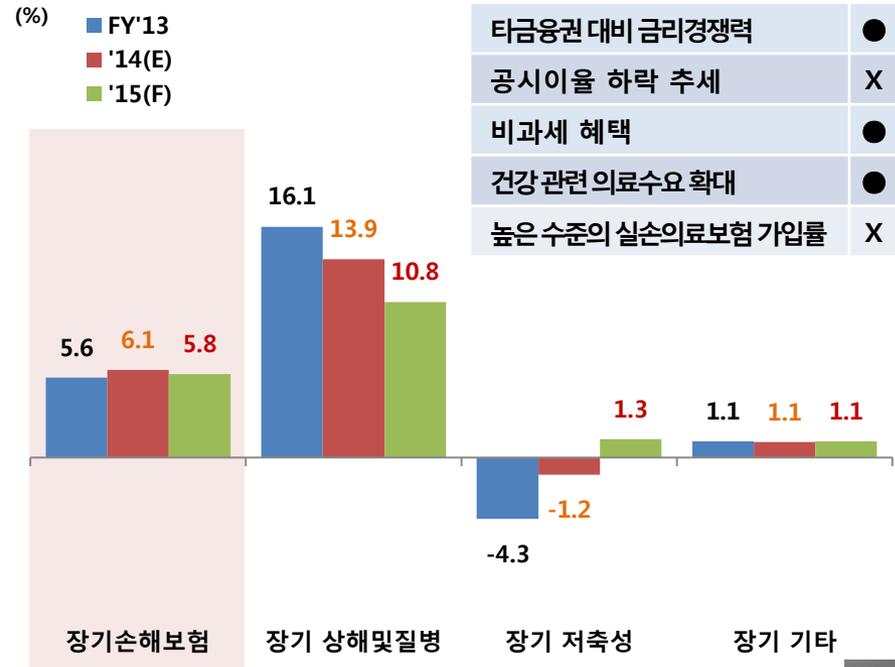
## 2015년 장기손해보험 계속보험료 중심으로 제한적 성장

- 2015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14년과 유사한 수준의 초회보험료 유입과 안정적인 해지율 유지 등으로 5.8%의 제한적 증가 전망
  - 장기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의료수요 확대,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노력 등이 신규수요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높은 수준의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장기 저축성보험의 경우 타 금융권 저축상품 대비 금리경쟁력과 비과세 혜택 등으로 소폭의 신규수요 회복이 예상되나, 저축여력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증가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임.

### 장기손해보험 분기별 보험료 증가율 및 해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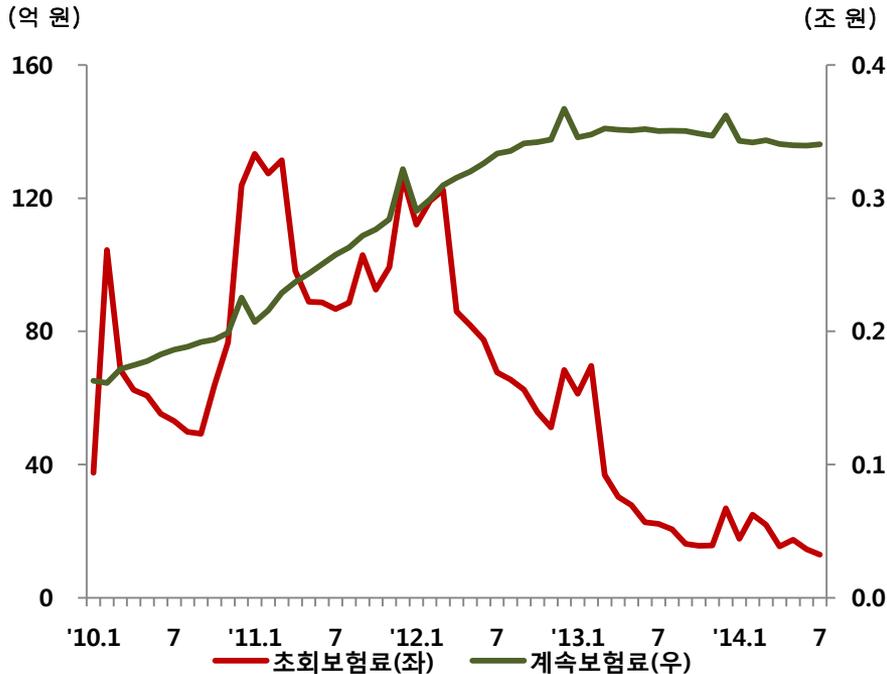
###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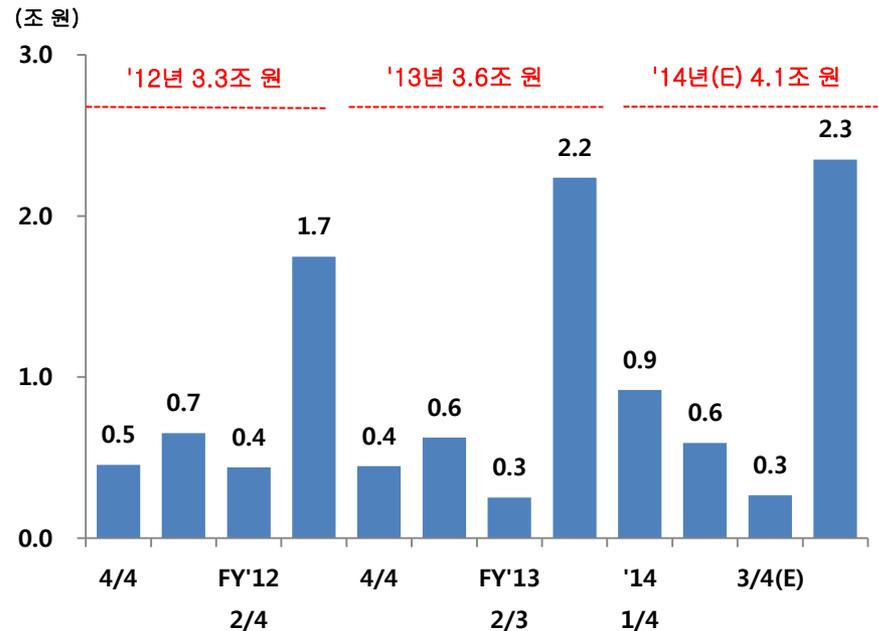
## 2014년 개인연금 역성장, 퇴직연금 두 자릿수 증가

- 2014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6% 예상
  -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효과 약화, 보험설계사 수수료 체계 변경 등으로 초회보험료 실적 감소세 지속
- 2014년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 일부 회사들의 관계사 신규계약 체결 등으로 15.9% 증가 예상

### 개인연금 초회·계속보험료(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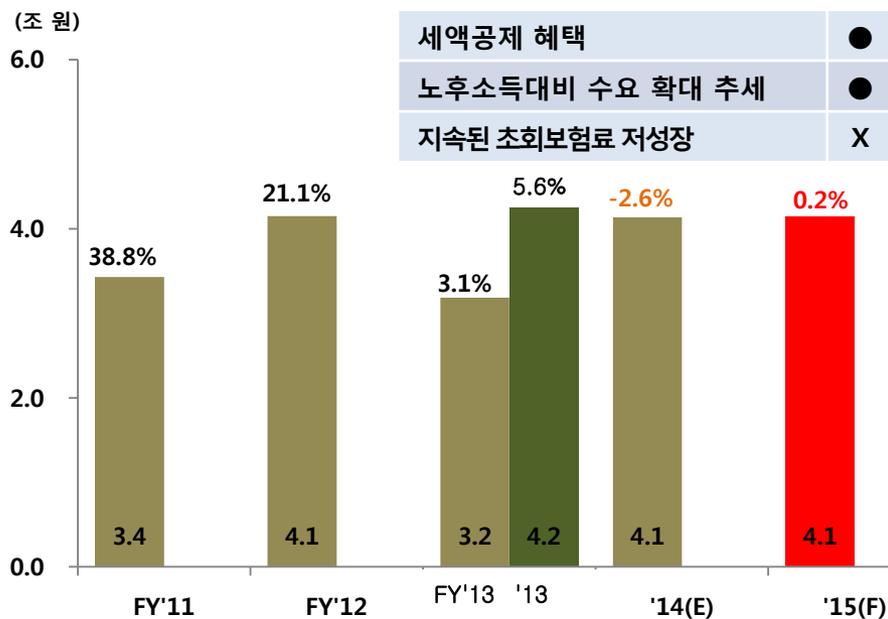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 2015년 개인연금 저성장 지속, 퇴직연금 완만한 증가세

- 2015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0.2% 증가 전망
  - 상대적 세액공제 혜택 부각, 사적연금 활성화 노력 등으로 초회보험료 소폭 회복 예상
  - 그러나 지속된 초회보험료 저성장으로 계속보험료 성장 여력은 약화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5.6% 증가 전망
  - 퇴직연금 세액공제 300만 원 신설, 확정급여형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 등으로 가입 확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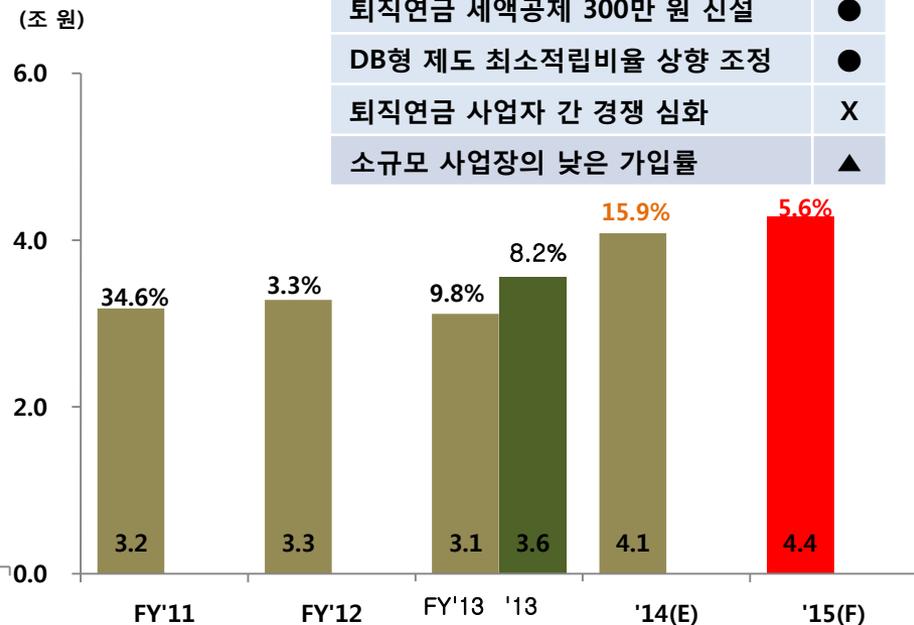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세액공제 혜택	●
노후소득대비 수요 확대 추세	●
지속된 초회보험료 저성장	X

주: 1) FY'13는 2013년 4월 ~ 2013년 12월 실적이고 '14(E)는 2014년 1월 ~ 2014년 12월까지의 실적임.  
2) '13는 2013년 1월 ~ 2013년 12월 실적임.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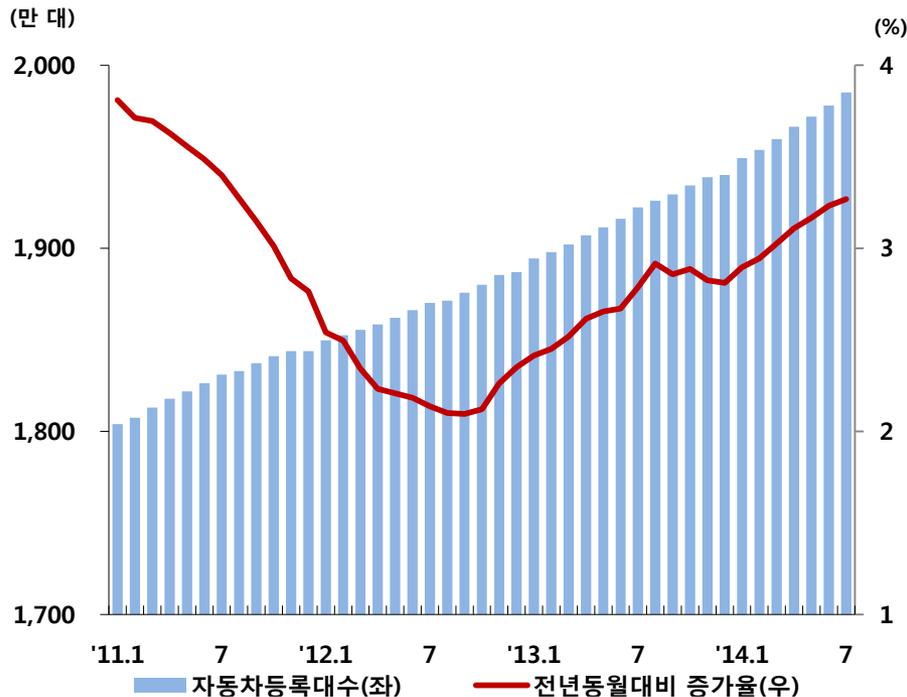
퇴직연금 세액공제 300만 원 신설	●
DB형 제도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	●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 심화	X
소규모 사업장의 낮은 가입률	▲

주: 1) FY'13는 2013년 4월 ~ 2013년 12월 실적이고 '14(E)는 2014년 1월 ~ 2014년 12월까지의 실적임.  
2) '13는 2013년 1월 ~ 2013년 12월 실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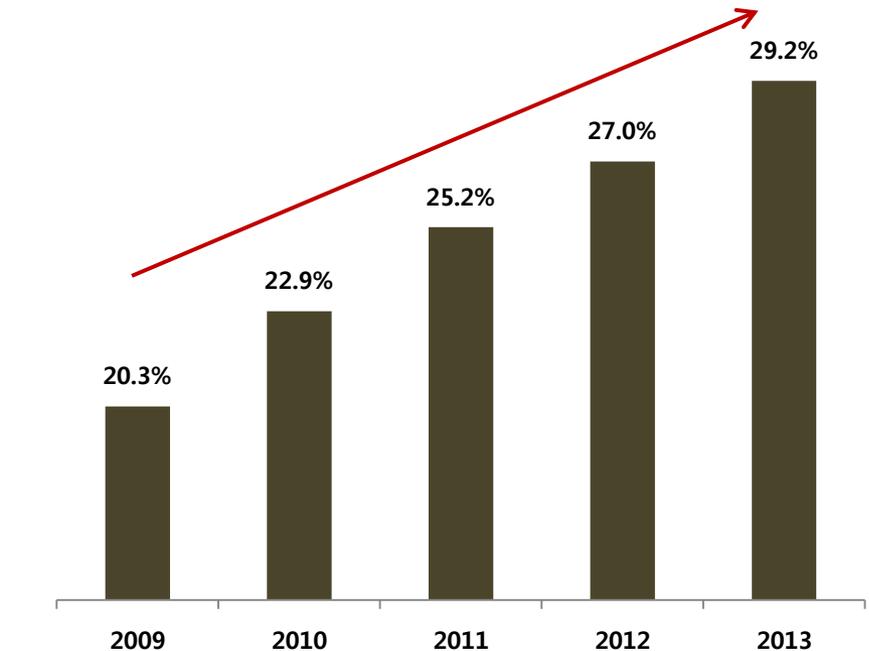
## 2014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상승

- 2014년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상승, 대물담보 가입금액 증가세,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으로 4.1% 증가 예상
  - 단, 주행거리 연동특약, 블랙박스 할인 특약 등 대당보험료 감소 요인 여전히 존재
  - 자동차보험 직판채널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

### 자동차 등록대수 및 증가율



### 자동차보험 직판채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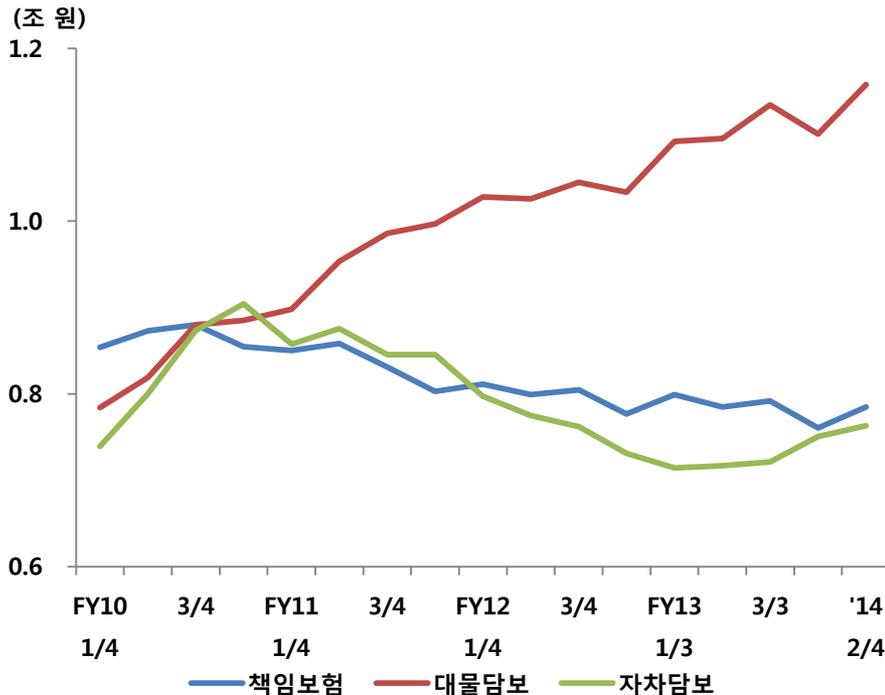


자료: 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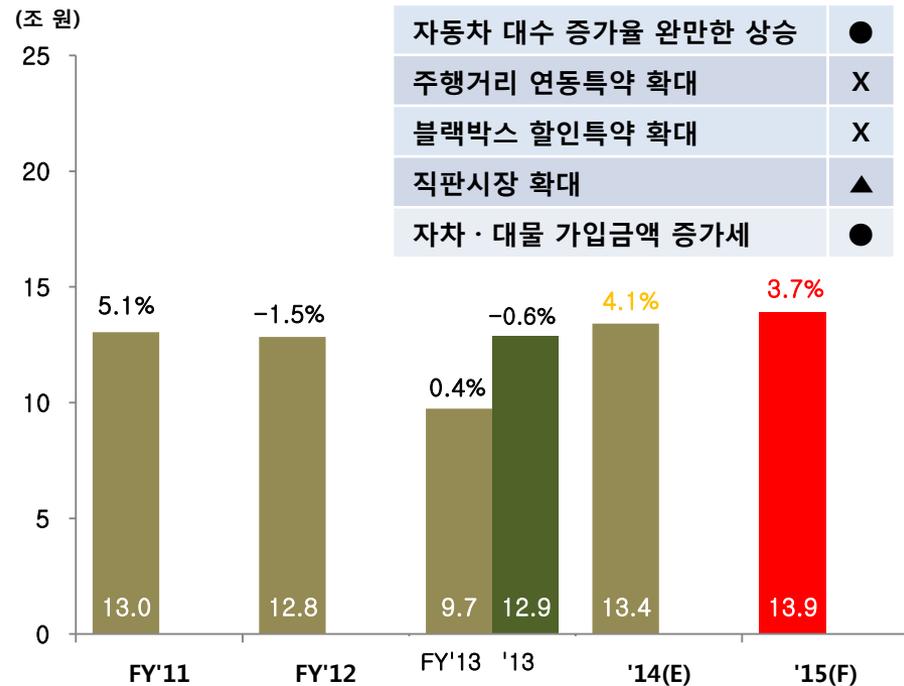
## 2015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등록대수 증가에 의존한 소폭 증가

- 2015년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등록대수의 완만한 증가세에 의존한 3.7% 증가 전망
  - 2015년 상반기에는 2014년 미반영된 자동차보험료 인상분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
  - 자차 담보의 완만한 회복세와 대물 담보 가입금액 증가세가 예상
  - 단, 할인형 상품 확대에 의한 대당보험료 감소와 직판채널 비중 확대도 지속될 것임.

자동차보험 주요 담보별 원수보험료 추이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자동차 대수 증가율 완만한 상승	●
주행거리 연동특약 확대	X
블랙박스 할인특약 확대	X
직판시장 확대	▲
자차·대물 가입금액 증가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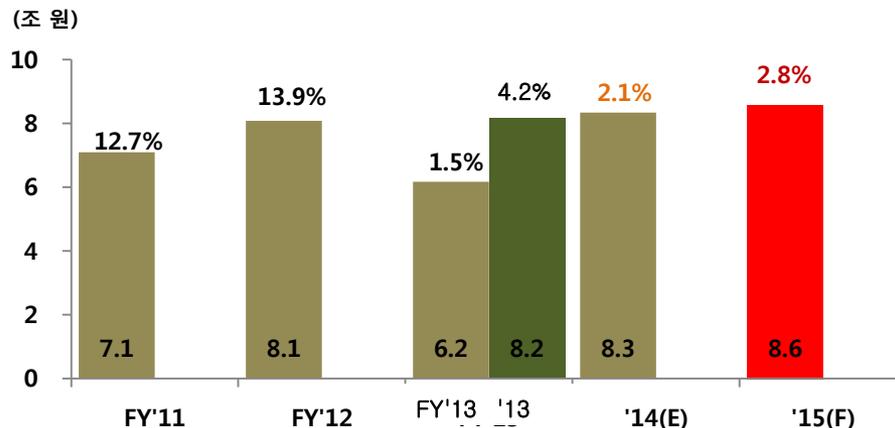
주: 1) FY'13는 2013년 4월 ~ 2013년 12월 실적이고 '14(E)는 2014년 1월 ~ 2014년 12월까지의 실적임.  
 2) '13는 2013년 1월 ~ 2013년 12월 실적임.

2014년, 2015년 일반손해보험 저성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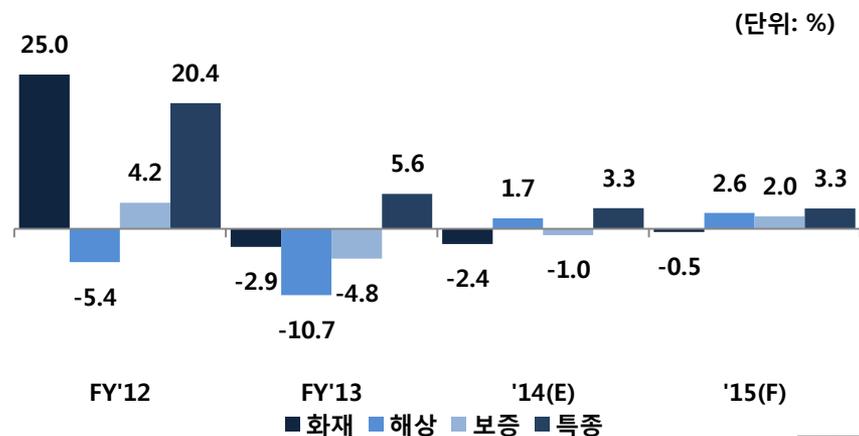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2014년(E)	2015년(F)
<b>일반손해</b>	2.1%	2.8%
<b>화재</b>	-2.4%	-0.5%
	· 시장침체 지속(X) · 건설경기 부진(X)	· 시장침체 지속(X) · 물건 이탈 추세(X)
<b>해상</b>	1.7%	2.6%
	· 물동량 소폭 증가(X) · 선박보험 소폭 회복(●)	· 소폭의 경기회복(●)
<b>보증</b>	-1.0%	2.0%
	· 건설경기 부진(X) · 보험료 조정(X)	· 소폭의 경기회복(●) · 건설경기 회복 지연(X)
<b>특종</b>	3.3%	3.3%
	· 경제성장률 둔화(X) · 일부 종목만이 성장(X)	· 소폭의 경기회복(●) · 배상책임, 상해, 종합 중심 제한적인 성장(X)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2015년 성장동력 약화, 제한적인 수준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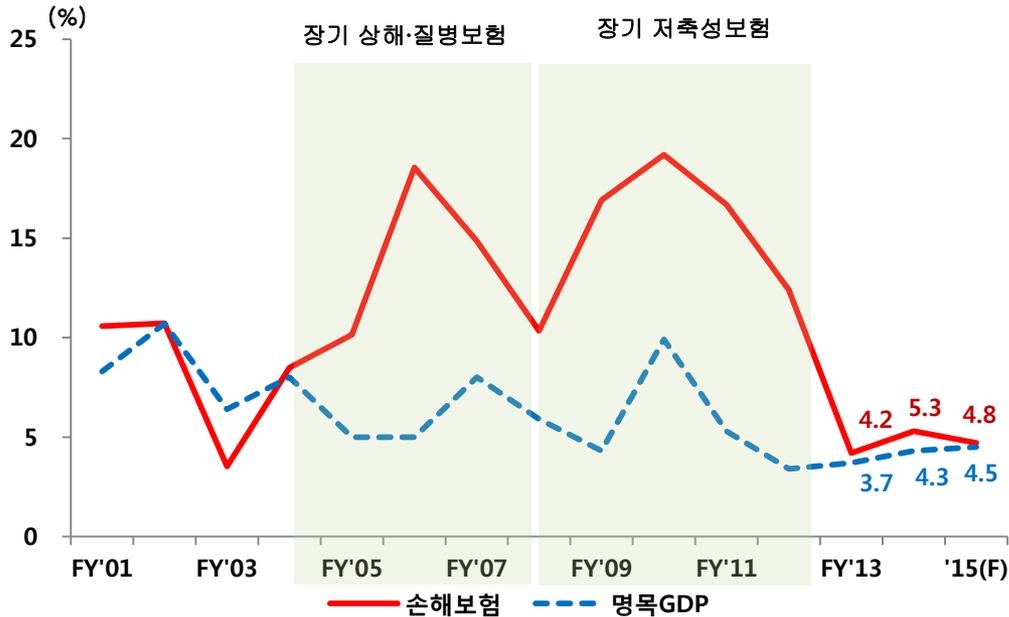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단위: %]

	FY2013	2014(E)	2015(F)	
손해보험	4.2	5.3	4.8	- 제한적인 원수보험료 증가
장기손보	5.6	6.1	5.8	- 계속보험료 중심 성장 - 장기 저축성보험 소폭 회복
개인연금	3.1	-2.6	0.2	- 세액공제 혜택 - 계속보험료 증가율 둔화
퇴직연금	9.8	15.9	5.6	-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자동차	0.4	4.1	3.7	-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상승세 - 대물담보 가입금액 증가세
일반손해	1.5	2.1	2.8	- 소폭의 경기회복

성장동력 약화로 명목 경제성장률 수준 성장

명목 경제성장률과 원수보험료 성장률 추이



- FY2004 이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명목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
- FY2013 이후 명목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위험요인

장기손해  
보험

- 경기회복 지연으로 보험 수요 위축
-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담

퇴직연금

- 신규 수요 창출 부진
- 금융권 간 경쟁 심화

자동차  
보험

- 자동차 내수시장 부진

일반손해  
보험

- 낮은 경제성장률 지속으로 수요 위축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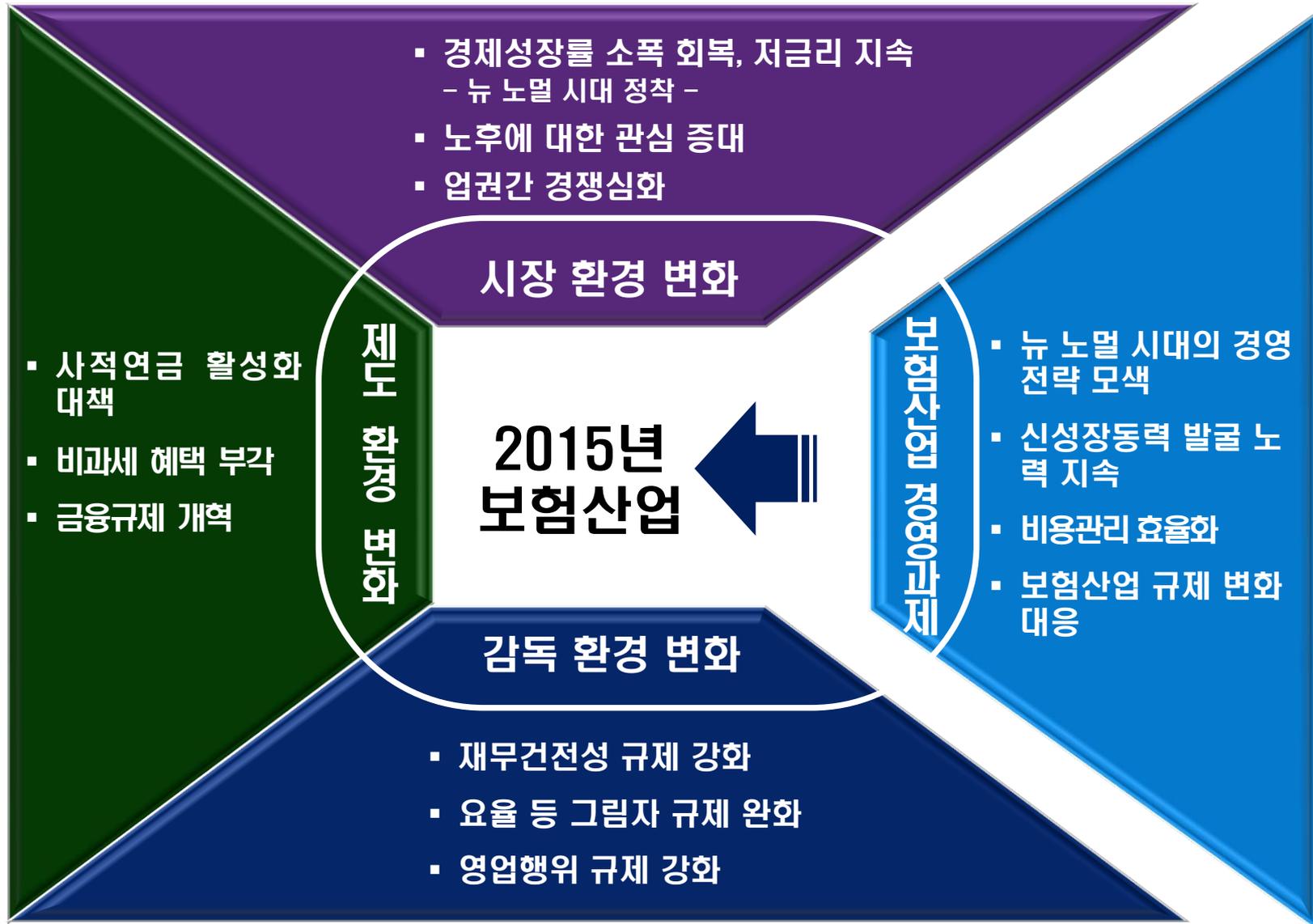
		FY12	FY13	2013	2014(E)	2015(F)	2014(E) 연납화 초회보험료	2015(F) 연납화 초회보험료
장기손보	원수보험료	40.2	31.6	41.9	44.4	47.0	10.5	10.8
	증가율	17.7	5.6		6.1	5.8	-9.5	2.9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4.1	3.2	4.2	4.1	4.1	0.2	0.2
	증가율	21.1	3.1		-2.6	0.2	-44.8	2.4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3.3	3.1	3.6	4.1	4.4	1.0	1.0
	증가율	3.3	9.8		15.9	5.6	-22.3	1.3
자동차	원수보험료	12.8	9.7	12.9	13.4	13.9		
	증가율	-1.5	0.4		4.1	3.7		
일반손해	원수보험료	8.1	6.2	8.2	8.3	8.6		
	증가율	13.9	1.5		2.1	2.8		
손해보험계	원수보험료	68.5	53.8	70.7	74.4	78.0	11.7	12.0
	증가율	12.4	4.2		5.3	4.8	-11.8	2.8

주: 연납화초회보험료=(1월납초회보험료 x 12)+(2월납초회보험료 x 6)+(3월납초회보험료 x 4)+(6월납초회보험료 x 2)+(연납초회보험료)+(일시납초회보험료/10)

# Ⅲ. 보험회사의 경영과제

1. 뉴 노멀 시대의 경영전략 모색
2.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 지속
3. 비용관리 효율화
4. 보험사업 규제 변화 대응





# 1. 보험산업 환경 변화 및 경영과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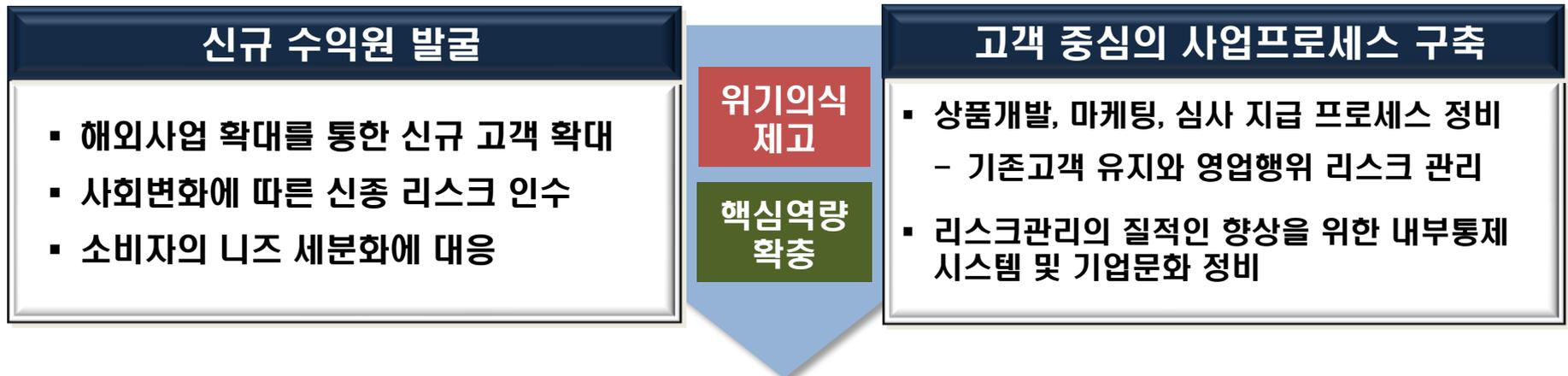
자료: 김성표 외(2013) 재편집



### 양적 성장 보다는 질적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 전략 필요



### 과거의 양적 성장 전략 유효성 검토



### 질적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

	보험산업 정체 원인	대응전략	주요 보험회사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년대~60년대</li> <li>•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종신 보험 수요 감소</li> <li>• 자본시장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뮤추얼 펀드 급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다각화</li> <li>• 보험지주회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진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NA Financial</li> <li>• CIGNA, UNUM, Aflac</li> <li>• MetLife</li> </ul>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년대~80년대</li> <li>• 저성장</li> <li>• 금융산업 경쟁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권내, 업권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진출</li> <li>• 고객접점 강화</li> <li>• 은행사업 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EGON, AMEV</li> <li>• National Nederlanden (현 ING Group)</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년대~90년대</li> <li>• 대내외적 경쟁심화</li> <li>• 은행, 비금융기업, 판매전문 회사들의 보험상품 판매 확대</li> <li>• 연금상품의 불완전 판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진출</li> <li>• 상품/서비스 혁신</li> <li>• 국내시장의 국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보험회사 유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SA, FairFox</li> <li>• Aviva, Prudential UK</li> <li>• Direct Group</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년대~2000년대</li> <li>• 저성장 저금리</li> <li>• 고령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상호화</li> <li>• 손해보험산업의 구조조정</li> <li>• 해외진출</li> <li>• 제3보험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경해상화재</li> <li>• 제일생명, 일본생명 등</li> </ul>

## 지속성장 위한 신규 수익원 발굴

### 저성장 장기화



그러나 기존사업 성장 회복 기대 불가능

핵심역량 중요

신규수익원 발굴 노력 불가피

### 해외 사업 활성화: 장기적으로 현지 복합금융그룹으로 성장

- 해외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
-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적 지원 필요
  - 장기적 일관적 추진, 현지의 의사결정권 확대, 규모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

### 고령층 대상 시장 확대

- 고령화에 대처한 공적부문의 역할 한계로 민영보험의 역할 강화가 요구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친화형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부가서비스도 활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배상책임보험 활성화

- 재난 사고 등으로 소비자의 안전 및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제고
- 수요를 고려한 상품개발과 적극적 마케팅 필요(예: 사이버배상책임 보험)
- 손해액산정 기준 합리화를 위한 노력 지원

## 저성장 지속에 따른 효율적 비용관리 방안 마련

저성장 장기화

경영성과 악화

핵심역량 확보 여력 부족

경쟁력 상실

## “고성장·저효율”에서 “저성장·고효율” 경영으로 전환

구조적 성장을 둔화

장기적인 비용구조 개선과 비용 절감 모색

신계약 중심 영업관행 개혁

사업비규제 강화에 대응한 비용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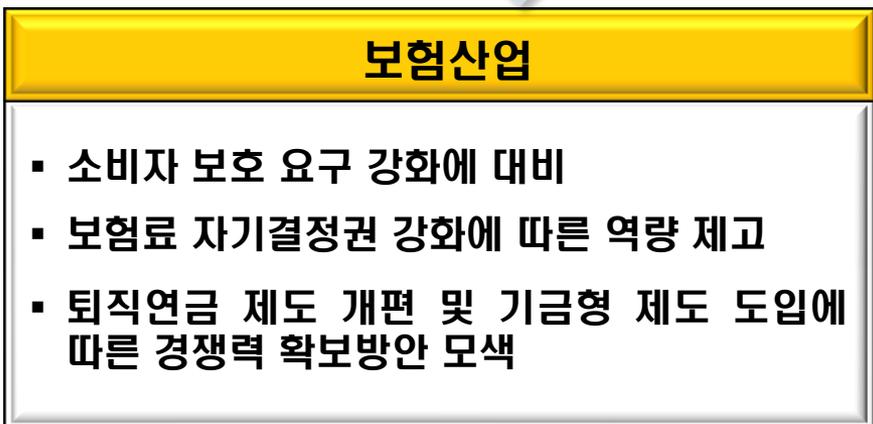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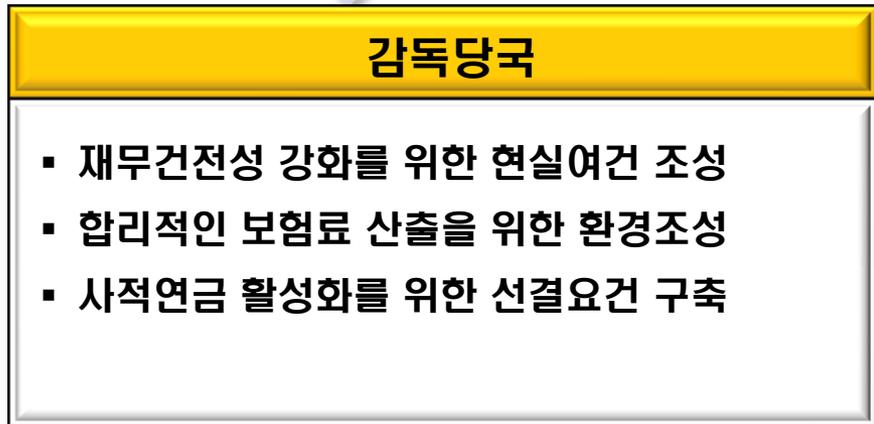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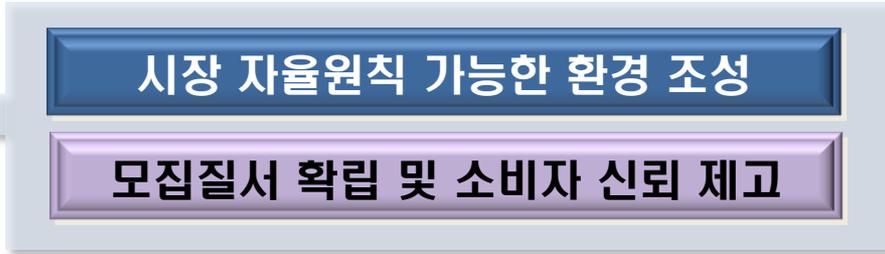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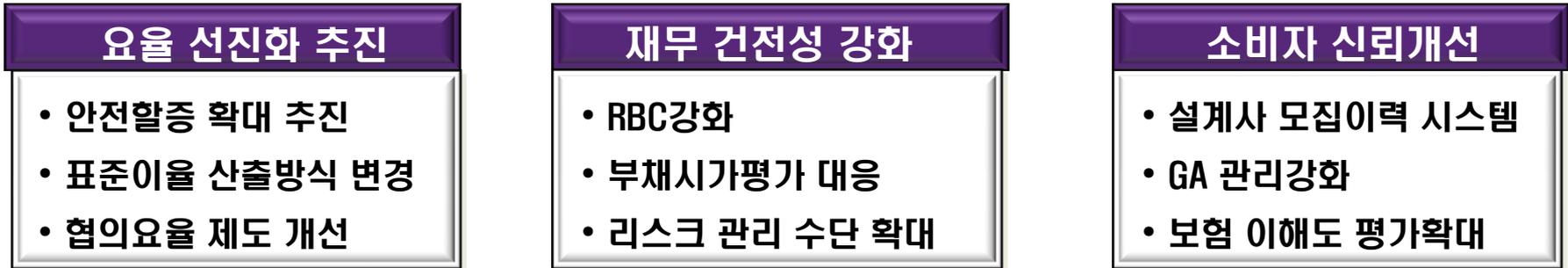
인력 구조조정

인력, 상품, 관리프로세스 전반의 효율성 제고

수익성 유지

성장역량 확보

## 보험산업 규제 변화에 능동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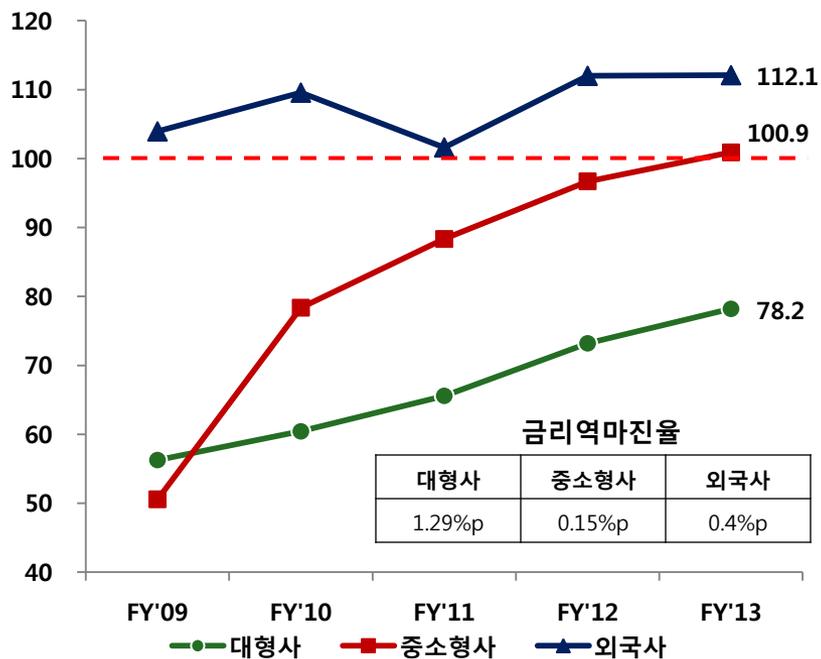
##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로드맵 발표

	2014	2015	2016	2017	2018
<b>1. 정량평가 (pillar 1)</b>					
신뢰수준 상향	금리위험 신뢰수준	신용위험 50%	신용위험 100%		
상관계수	시행				
연결 RBC	시범운영	시행			
변액보증위험헤지	방안수립	시행			
장수위험		방안수립			시행
부채듀레이션		방안수립	단계적 시행		
운영위험		방안수립	시행		
내부모형		방안수립	시범운영	시범운영	시행
자본확충인센티브		방안수립	시행		
<b>2. 정성평가 (pillar 2)</b>					
ORSA		시범운영	시범운영	시행	
<b>3. 시장공시 (pillar 3)</b>					
공시제도	방안수립	시행			
<b>4. 보험부채 시가평가 (pillar 4)</b>					
IFRS4 phase2	도입준비				시행
LAT	단계적 시행		신용위험 100%		폐지
장기보험 IBNR	단계적 시행		신용위험 100%		
변액보증준비금	방안수립	시행			

## 규제 강화 시 RBC 비율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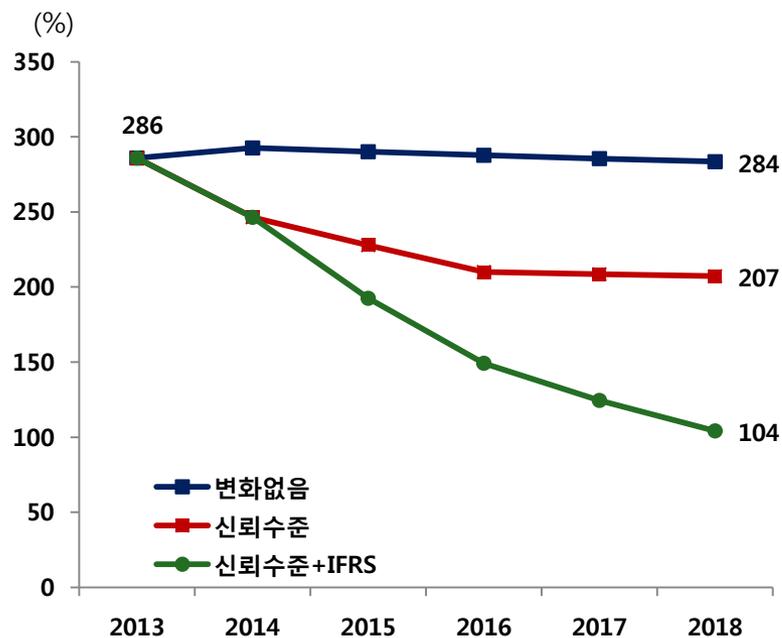
- 중소형 생보사는 금리리스크와 금리역마진율이 줄어들었으나, 대형사는 여전히 금리리스크와 금리역마진율이 큰 상태
- 규제 강화 시 2018년 생보사 평균 RBC 비율은 104%로 하락 전망

### 자산금리민감액/부채금리민감액



자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 규제강화에 따른 RBC 비율 추정



주: IFRS4 Phase2에 의해 가용자본이 2015년부터 매년 10.5조원씩 감소하여 2018년까지 총 42조원 감소 가정

## 재무건전성 규제 대응 강화

### RBC규제 강화

- 신용위험계수 상향
- ORSA 시범 시행, 공시 강화

### IFRS 4 phase 2

- 보험부채 적정성평가(LAT) 단계적 강화
- 2015년 세부방안 마련; 2016년 시범 시행

## 효과적인 자본관리와 위험기준 성과지표로 전환

### 자본 확충 및 위험 경감

- 후순위채 활용한 자본비용 절감
  - 후순위채 상시 발행
- 파생상품을 활용한 노출위험 축소
  - RBC 산출 시 인정

### 업무 프로세스 개선

- 최소한의 기준 마련과 시스템 개선 병행
  - 정교한 현금흐름 산출체계
  - 정교한 ALM 시스템 구축
- 위험관리 프로세스와 경영의사결정 연계
  - 위험관리와 자본규제를 연동하는 ORSA 대응

경영 및 정책과제 관련 세미나 일정

제목	일정	장소
효율적 의료비 관리를 위한 공사 협력방안 (국제세미나)	10/22(수) 09:00~15:30	조선호텔
보험회사 신성장동력 확보방안	11/6(목) 14:00~16:30	중소기업회관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	11/11(화) 14:00~16:30	화재보험협회
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11/17(월) 14:00~16:50	전경련회관

**감사합니다**

보험연구원